

싸움

감독 한지승

제작 상상필름 / 시네마서비스

1. 프롤로그

(무지 화면 위로,

도심의 방거리 소음과 함께 선행되는 부드러운 전조음.

잠시 후 화면, 불현 듯 열리며 보이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 밖을 보며 울고 있는 그녀, 진아(27).

흐르는 눈물을 힘겹게 참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인 그녀.

잠시 보이다가는 CUT OUT 하면-

VISION. INTER CUT-

쇼핑몰 어느 곳.

화가 나 그렇그런 눈으로 상대에게 소리치는-

진 아:내 눈을 봐! 내 눈을 똑 바로 보고 다시 얘기해! 왜 눈도 못 맞춰? 자신 없어? 그것 밖에 안돼?

순간, 화면 빠르게 OUT-

잠시 후, 다시 화면 불현듯 열리면-

절망적인 얼굴로 허탈하게 도심 거리를 걷고 있는 그, 상민(29).

눈물이 내려는지 애써 밤하늘을 핑계 삼아 보면-

VISION. INTER CUT-

쇼핑몰 어느 곳.

소리치는 진아 때문에 주위가 신경 쓰이면서도

역시 화가 나있는-

상 민: 니가 먼저 취소해! 먼저 시작한 건 너야! 항상 너! 그건 알아? 취소해! 취소..

상민, 버럭 화를 내려다가는 시니컬하게 포기 제스처를 보이고는

뒤돌아 걸어간다.

연인들의 싸움은 으레 독해 보이기보다는 나름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법!

잠시 후, 화면 OUT.

그러자 음악, 기다렸다는 듯 전조음의 힘을 받아

복받치는 감동의 멜로디를 터뜨리면-

으레 사랑 영화의 엔딩이 그렇듯-

택시에서 뛰어 나와 상민을 찾아 거리를 달리기 시작하는 진아!

역시 상민도 애써 참았던 감정이 무너지며 진아를 향해 뒤돌아 뛰기 시작한다!

음악, 고조되면서-

대형 쇼핑몰이 있는 밤거리.

서로를 찾아 해매는 진아 와 상민.

차도를 막무가내로 건너는 상민.
급정거하는 차들이 쿵락션을 울려대며 욕을 하고!
정신 없이 달리는 진아.
그녀를 피하려던 오토바이 심하게 넘어지고!
쇼핑몰 에스컬레이터를 막무가내로 거꾸로 뛰어 내딛는 상민.
역시 쇼핑 중인 행인들과 부딪히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뛰는 진아 등,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들 몽타주.
결국 서로를 만나는 진아 와 상민.
순간 너무 반갑지만 애써 감정을 숨긴 채 숨을 몰아 쉬며 한 동안 말이 없던 두 사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얼굴로 서로를 노려보다가는-)

진 아:(터지는)바보야? 내가 새가슴이라고 놀린 게 진심인 것 같아? 나두 내가 어떤 앤지
아는데, 오빠가 날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내가 내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 하는지 알아?

(주위 사람들, 두 사람을 힐끗 거리기 시작하고.)

상 민:나는 진심인거 같아? 니 정신머리 출석체크 한다는 말한 두 번 해? 나 소심한 거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평생이 안 바뀌는 난데, 내가 너라서 얼마나 고마워하는 지
알아? 니가 내 곁에 영원히 있어줬으면 하고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

(말하고 보니 상민의 말이 사랑 고백이 되어버리고!

순간 감동을 받는 진아.
주위 사람들, 기분 좋은 미소.)

진 아:(목소리가 떨리는) 근데 왜 헤어지재, 이 바보야...

상 민:(자신 없는) 니가 헤어지고 싶어 했잖아...

진 아:(버럭)내가 언제-!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진아.
그런 진아에게 다가오는 상민.
그러나 뭐라 말을 못 꺼내면-)

진 아:..오빠가 먼저 그랬잖아..다르니까 만나는 거라구.. 틀리니까 맞춰 가는 거라구..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라구..

상 민:..니 마음을 몰랐어. 난 항상 이래.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난 나만 생각하니까
너만 힘든 거야...

진 아:..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오빠가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는데..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부족해...

(연인의 화해.)

상민,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는 진아를 잠시 바라보다가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그녀의 손을 잡아 어디로 가려 하며-)

상민:..진아야, 잠깐만..

진아:..왜?

상민:..아니, 저기..할 얘기가 있는데..중요한 얘기라..

(순간 진아, 뭔가 느낌이 오는 듯 상민의 팔을 자기가 다시 잡으며-)

진아: 여기서 얘기 해!

상민:(난감)..아, 여긴 사람들도 많고..좀 그런데..

진아:(단호히)안돼. 여기서 얘기해!

(상민, 곤란해 하고.)

그런 상민을 바라보는 진아의 얼굴에는 기대감 짙은 미소가 피어 오르기 시작한다!)

상민:(용기가 부족한)..저기...

(그런 상민을 바라보는 진아의 얼굴 위로 간절한 그녀의 주기도문이 흐르기시작한다.)

소리:(진아의)..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상민:..예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참 어렵더라구, 태어나서 처음 하는 얘기니까..
진아야..저기, 우리..

(더욱 간절해지는 진아의 주기도문.)

차라리 눈을 감는 진아.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더욱 짙어진 흥분과 기대감.

상민, 그런 진아를 바라보다가는

용기를 내어 주위의 눈치를 보다가는 그녀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면-

조용히 눈을 뜨는 진아...

천천히 상민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가득한 감동...

이 순간을 둘만 즐기고 싶은 진아.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며-)

진아:..쉿..조용..조용...

(그녀의 조용한 반응이 다행인 긴장한 표정의 상민.)

무한한 사랑을 담아 그런 상민을 바라보던 진아,

천천히 그를 다시 안으면-
신경 안 쓰는 척 은근히 두 사람을 주시해왔던 주위 사람들,
이들의 상황이 궁금하고!
눈을 꼭 감고 터져 나오려는 행복을 애써 누르고 있던 진아,
결국 안 되겠는지 상민을 꼭 안은 채 기쁨에 겨워 소리친다!)

진 아:(큰 소리로)그래, 결혼하자, 우리-

(화들짝 놀라는 상민!
으레 사랑 영화의 엔딩이 그렇듯-
음악, 고조되면서-
주위 사람들, 상황을 파악하곤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치고!
터지는 폰 카메라 후레쉬들!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그렇이는 진아.
그런 진아를 보며 행복을 느끼는-)

상 민: 나 너 없으면 죽어..자신 없어, 인생..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야!

(상민의 진심에 감동을 하는 진아의 물기 어린 미소.)

진 아: 그래, 영원히 함께..헤어질 거면 죽자..그러자 우리!

(서로의 사랑을 목숨 걸고 확인하는 두 사람.
근처 베이커리 아저씨는 그들에게 폭죽도 터뜨려 주고!
주의의 전광판들에는 때마침 불꽃놀이 영상도 보여 지고!
그들 덕에 행복해진 주위 사람들의 축복 속에
CA, 천천히 떠오르면-
사랑스런 두 사람의 모습 점점 멀어 지다가는-
순간, 음악과 함께 화면 CUT OUT 되면-)

2. 헤어짐의 몽타주

(음악, 조금은 슬픈 느낌의 피아노 소곡으로 바뀌면서...
모노톤의 화면으로-
간간히 보이는 크레딧 타이틀과 함께-

-비오는 도심의 거리. 낮
우산을 쓰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 위로 뜨는 자막.

2년 후.

잠시 후 모노톤의 많은 우산들 사이로 끼어드는 푸른색 우산 하나.
행렬의 흐름을 따라 무기력하게 걷고 있는,
조금은 야윈 모습의 무표정한 상민.
이때 우산 하나가 CA.를 가리면-

-진아의 전원주택. 낮
창 밖으로 내리는 보슬비를 바라보는,
역시 야윈 표정의 진아.
그리곤 무표정이 고개를 돌려 거실을 보면-
이삿짐센터 인부들이 비 젖은 진아의 짐을 안으로 들고 있다.
진아, 무심히 가구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상민의 아파트. 낮
진아의 짐이 등성등성 반만 빠져나간 거실.
구석 소파에 등을 보이고 누워 미동도 않고 있는 상민.
마치 공간의 일부 같다.

-다시 거리. 낮
많은 모노톤의 우산들 사이에서 쇼윈도를 구경하고 있는 노란 우산 하나.
그 안의 진아, 잠시 후 무표정한 얼굴로 시선을 거두곤
가던 발걸음을 시작하고.
CA. 그녀를 따라가다가는 역시 우산 하나가 앞을 막으면-

-동네, 학교 운동장. 밤
땀에 흥뻑 젖은 채 멍한 표정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민.
운동을 많이 해본 자세는 아닌 그.
무념무상의 얼굴.
그저, 달리고 있다.

-마켓
카트에 담겨 있는 새로 산 형광등과 집에 필요한 기본 공구들.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마켓을 둘러보고 있는 진아.
문득 발걸음이 멈추면, 술 진열대다.
무표정히 바라보는 진아.

-상민의 아파트. 낮
거실의 빈 공간을 정리해 보는 상민.
여전히 어딘가 허하자 자기가 들어가 보기도 하고.
가구 배치가 마음에 안 드는지 무심한 표정으로 책장을 옮기려

한쪽으로 밀기 시작하면-

-진아의 전원주택. 낮

요령 삼아 담요 위에 책장을 놓고 그것을 당기며 옮기는 진아.
소파며 큰 짐들은 얼추 자리를 잡았고.
한숨을 돌리던 진아.
그리곤 꺼지듯 바닥에 쓰러져 누워버리고.
그저 멍하니 천정을 보는 진아의 공허한 눈동자.
그리곤 이내 눈물이 고이려는 걸 애써 참아낸다.

-상민의 아파트. 밤

빈 화면으로 들어오는 공처럼 말려진 검은 비닐봉지 하나.
보면,
거실 바닥과 혼연 일체가 되어 발로만 몸을 밀어 기어 다니며
입으로는 봉지를 붙어 방문을 향해 숏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민.
습관인 듯 혼자 놓고 있는 한쪽 구석의 T.V.
상민, 멍기적 멍기적 기적적으로 봉지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누운 상태에서 손만 들어 무심한 표정으로 나름의 꿀 세레머니...

-다시 거리. 낮

노란 우산 속의 진아.
파란 우산 속의 상민.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걸어오고 있지만
많은 모노톤의 우산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그렇게 스쳐 지나고.
비 오는 거리를 부유하듯 멀어져 가는 노란 우산과 파란 우산...
그 모습 위로 떠오르는 메인타이틀-)

싸 윙

(음악, 서서히 줄다가는-)

3. 진아의 유리 세공 작업장. 낮

(‘퍽-’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 불길의 치솟고!
새로 만든 화덕에 처음 집혀진 불.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

보면-

유리 공예가인 진아가 자신의 전원주택 옆에 새로 만든 작업장에서
친구들이며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화덕 점화식을 하고 있다.)

사람들:(축하하는)돈 태워, 돈..그래야 돈 벌어..!

(기뻐하는 진아와 친구들.)

향 미: 잠깐만, 진아, 한 말씀! 빨리!

진 아:(빠며) 한 말씀은 무슨..

(그리곤 장난스레 들뜬 분위기에 맞춰 마치 나레이터 모델처럼-)

진 아:(웃으며) 고마워요, 잘할게요, 많이들 도와줘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분 좋게 옆에서 거드는-)

향 미:(와인 잔을 들며)진아가 전 남편 뺨 뜯어서 만든 거예요! 울인이예요! 부탁 합니다~!

진 아:(농담을 받는) 무지 어렵게 뜯었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향 미: 애두 만만치 않아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에 옆에 있던, 조금은 폰수 끼 있어 보이는 진숙.

자기도 신이 나 농담 대열에 끼어본답시고-)

진 숙: 맞아요~, 웬만하면 재량 재혼하지 마세요, 아주 강 거덜나요~!

(일동, 순간 씩렁.)

진 아:(수습하는)..자, 음식들 드시구요, 여기 와인도 있으니까...

(이때 핸드폰이 울리자 마침이다 싶어 받으며 자리를 옮기는 진아.

사람들도 둘 셋 짹을 이루고.

향미, 진숙을 보며 한숨.

진숙, 멀뚱멀뚱.)

지인 1: 진아, 생각보다 얼굴 좋네? 연애할 때 죽구 못살아서 자상이 심하겠다 했는데.

지인 2: 요즘 다 그렇지 뭐..그냥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다가 봐.

지인 3: (코웃음) 친구? 개별. 누군 안 해봤나..다들 그러구 헤어져.

(이때 저쪽에서 느낌상 자기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는
지인 1,2,3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진아.
그래도 모른 척 힐끔대다가는 문득 눈이 마주치자
와인 잔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날리면-
아닌 척 똑 같이 입가에 미소를 띄워 답례를 하곤 진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지인 1: 이혼할 때도 장난 아니었다며?

(급하게 치고 들어오는 회상-

이혼 당시, 상민의 아파트.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낚아채는 손.
상민과 진아가 찍힌 그 사진을 가위 날이 정확하게
두 사람의 선을 따라 오려내고 있고.
혹여 잘못 오릴까 이마에 땀까지 맺히는 상민의 집중력!
차갑게 노려보는 진아, 기가 막히다..!

다시 작업장의-)

지인 3:(놀란)진짜야? 히트다, 정말.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1등이다, 1등! 사진 오리는 거!
또잔! 소심! 와, 인간 궁금해지네. 뭐 하는 인간이래? 지금 뭐해, 그 인간?

(이때 난데없이 치고 들어오는 인서트-

00 대학 화장실.
강의 전, 거울을 보며 밝은 표정을 연습해 보는 상민!
애써 거울을 보며 손가락 총을 쏘아보기도 하지만 잘 안 되는지 이내 낙담.

다시 돌아오는-)

지인 1:(기가 막힌) 이런 건 변태도 아니고 뭐라 그러나?
소 리:(확신에 찬 상민의) 허물을 벗는다고 하죠!

4. 00대학 식물원 내 곤충 부화실. 낮

(화면 가득 변태중인 곤충이 보이고.
학생들과 함께 그것을 보며 강의를 하고 있는-)

상 민:..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구요, 변태의 과정인 거 아시죠? 이 경우는 불완전

변태가 아닌 완전 변태의 형태를 띠고 있구요..이게 바로 곤충의 위대함 이에요!
오해의 포인트가 여긴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본능적인 목표인 유일한 생물이 곤충
이라는 거구요, 물론 고통, 수반되죠. 안 그럴겠습니까? 당연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점이 바로인간보다 나을뿐더러 배워야 할 바로미터라는 걸...

(과장기마저 보이는 상민의 열변을 지루하게 듣고 있는 학생들.)

학생 1: 야, 요즘 저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냐?

학생 2:(하품)..허물 좀 벗어나 보지, 요즘...

5. 동, 축산과 우사 근처. 낮

(휘파람을 불며 세차를 하고 있는 상민.
우척이나 즐거운 표정이다.
우사 옆에서 이런 상민을 뵈히 바라보고 있는 태화.
성격인지 무뚝뚝한 표정.)

태 화:(흔жат말)..조울증! (그리곤 부르는)야.

상 민:(기분 좋은) 네?

태 화: 이제 우사 근처에서 세차하지 마라.

상 민: 왜, 임마.

태 화: 우리 지희 아프다.

상 민: 취미이자 낙이다, 협조 좀 하자!..그리고 지희 지희 하지 좀 마라. 짓소 이름이 지희
가 뭐냐 지희가, 애인이나?

태 화:..축산과 교수가 짓소 사랑하는 게 이상하냐?

(왠지 진지해 보이는 태화의 눈빛.
그런 태화를 황당하게 보는 상민.
이내 말자며 다시 콧노래를 시작하면-)

태 화:(뜬금없는)..너 이혼한지 얼마 됐냐?

상 민:(무심결에 노래하듯) 3개월~ (그리곤 기분 잡치며 찌리는) 이씨..너 들어가, 임마!

태 화: 너 그거 조울증 맞다. 너 지금 아야하는 거야. 병원 가기 싫으면 명상 원 가라.

상 민:(과장된 파안대소) 아하하! 명상 원? 너 지금 명상 원 이랬냐? 명상 원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식! 아하하! 명상 원...

6. 명상 원. 밤

(명상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 틈에 끼어 명상을 하고 있는 상민.
전 썬과는 다른 진지한 느낌.)

7. 진아의 전원주택. 밤

(조금은 외딴 느낌인 진아의 전원주택,
진아가 사람들을 배웅한다.
취기가 도는 진숙, 진아 옆에 바짝 붙어서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그러나 엄청 떠들어 대며-)

진 숙: 니가 아직 몰라서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갈라서구도 괴롭히겠다고 달라드는 놈이야. 그런 놈들 있어요. 내 전남편 같은 새끼들..그런 놈들은 아주 강 관절분리 들어가 줘야 돼요! 안 그럼 그 종자들은...

진 아:(웃으며 말을 끊으면서) 알았으니까 너나 빨리 들어가 줘..(그리곤 향미에게 걱정스런)근데 나 진짜 괜찮은 거니? 못하면 못한다고 해줘! 불안하면 내일 일찍 한 번 더 맞춰 보구! 거기 가서 버벅대면 끝이잖아!

향 미:(웃으며) 잘했다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샘플이나 잘 챙기고, 개꿈만 피하면 돼..근데 밤에 무섭진 않아?

진 아: 개들도 있고 뭐, 조용해 동네.

향 미: 개들이 사람만 하겠니? 진숙이라도 있으라 그러 까? 어차피 채도 혼잔데.

진 숙:(문득 들었다) 응? 나 불렀어?

진 아: 아, 아니..(그리곤 웃으며 향미에게) 재가 더 겁나, 빨리 가..(그리곤 사람들에게) 다들 고맙고, 가다가 대리들 불러야 돼요-! 잘들 가-!

(이때 가다가 다시 뛰어돌아오는 진아의 조수, 인철.
20대 중반의 발랄하고 한성찬 꽃 미남이다.)

인 철: 선생님, AS요!

진 아:(문득 깨닫는) 아차차, 깜박했다!

인 철:(웃으며) 그러실 줄 알고 제가 했어요. AS 팀 내일 일찍 올 거예요. 그때까지 화덕 건드리지 마세요. 밸브가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진 아: 넌 술 많이 안 먹었어?

인 철: 선생님 요리 먹느라 구요, 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남아서 더 먹고 갈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여간 잘 주무시구요, 저도 내일 일찍 올게요!

(미소를 날리고 뛰어가는 인철의 풋풋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는 진아.)

그리고는 이내 시선을 털고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다.
음악,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고...
진아, 괜히 헛기지개를 펴곤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면-)

8. 상민의 아파트, 거실. 밤

(집으로 들어오는 상민.
손에는 장을 본 비닐 봉투가 들려 있고.
텅 빈 공간.
익숙한 듯 기계적인 동선.
그렇다고 허함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9. 동, 욕실. 밤

(애완 곤충인 홍다리 사슴벌레, 우혁을 목욕시키는 상민.
우혁이 싫은 듯 바둥대자-)

상 민: 김 우혁, 가만 안 있어? 너 씻어야 돼! 안 그럼 너는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포자
총에 의해서 생육이 불균일해지고 용화 우화가 나쁘게 되거나...

(혼자 주절대는 상민.
그러자 욕실의 지저분한 것이 보이자 무심결에 닦아내고.)

10. 진아의 전원주택, 거실. 밤

(뒷정리를 하는 진아.
와인 잔을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는 와인 잔.
난감히 쳐다보는 진아의 얼굴 위로-)

소 리:(진아의)...사과해!

11. 상민의 아파트, 거실. 회상

상 민:(버럭) 일부러 깬 게 아니라니까-?

(음악, 연결되면서.

바닥에는 유리병 공예품이 하나 깨어져 있고,
상민의 손에는 전 썬의 흉다리 사슴벌레, 우혁이 들려있다.
깨진 유리병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진아.
분노를 넘어서, 차가움 그 자체다.
기에 놀리지 않으려는 상민은 오히려 씩씩대고 있고.)

진 아:(차분한)..이 병..우리 선생님 마지막 작품..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상 민:(버럭)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혁이가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애 꺼낼라고 흔들다 떨어진 거라니까!

진 아:(할말을 참으며)..이젠 정말 싸우는데 지쳤어..사과 해.

상 민:(더 큰 소리로) 내가 할 소리야! 내가 왜 사과해! 일부러 깬 게 아닌데-!

진 아:(목소리가 떨리는)..우리 정말 나아질 수 없는 거니?..마지막이야..미안하다고 해..
제발...

상 민:(긴장되지만 애써 버텨보는)..유감이다,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진아의 표정...)

진 아:(울지 않으려 노력하는)..우리..끝내..!

12. 상민의 아파트, 거실. 밤

(얼굴에 팩을 하고 있는 상민이 T.V를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팩을 위한 용품들이 준비하고.
화면에는 철새들의 여정과 고난을 그린 '아름다운 비행'류의 영화.
애써 참아보지만 가끔 눈가를 닦곤 허허롭게 웃어보는 상민.
그리곤 하던 일이었는지, 지갑 속 쿠폰들을 마저 꺼내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는 그.
꽤나 많이 모았다..)

13. 진아의 전원주택 앞. 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진아.
역시 상념을 떨치려는 듯 크게 쉼 호흡을 하고는

강하게 자신을 다지는 듯 손바닥으로 얼굴을 몇 번 때리곤
개들과 함께 로드웍을 시작한다.
힘 있게 진아를 쫓는 험상궂은 대형 복서 두 마리.
그 모습을 비춰주는 따뜻한 초가을 밤하늘의 손톱달.
음악. 잠시 고조되다가는-
사라지고.)

14. 상민의 집, 침실. 밤

(침대에서 뒤척이는 잠옷 차림의 상민.
잠이 안 오는 듯 벌떡 일어나 서성이기도 하고, 원가를 찾기도 하고.
그리곤 또 원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는 이내 포기하고 침대로 몸을 던진다.
꽤나 원가가 괴로운 그.)

15. 00대학, 교수식당. 낮

(배식대에 줄을 서 있는 상민과 태화.
상민, 잠을 잘 못 잔 초췌한 얼굴이다.)

상 민:(문득)..야, 무슨 소리 안 들리냐?
태 화: 개그냐?

(상민, 고개를 가웃 거리 곤, 의아한 표정을 짓고.
그러다가는 또 문득 보면-
저쪽 테이블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 여교수들,
가끔 상민을 힐끗 거리며 이야기를 하다가는 웃기도 하고.
예민한 표정의-)

상 민:..야, 저기 테이블, 자연대 선생들이지? 내 얘기하는 거 같지 않냐? 왜 자꾸 날
쳐다보지?

태 화:(흠칫 보곤) 니가 자꾸 쳐다보니까 보지.
상 민: 아난데..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여교수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자
끝까지 뚫어져라 예민하게 보다가는-)

상 민:..야, 혹시 학교에 내 소문 도는 거 있냐..?

태 화: 니가 뭐 이촌한 연예인이냐?

(태화의 핀잔에 다시 침묵.)

그러다가 상민, 배식대에 식판들이 좀 빼뜰게 올려져 있자
자기도 모르게 각을 맞추고.

태화, 한 두 번이 아닌 듯 상민의 손을 쳐 경고.

다시 침묵.)

상 민:(또다시 문득) 아, 진짜 아무 소리 안 들리냐? 아, 나 요즘 왜 이러지?

태 화: 굿하자.

상 민: 이씨...

16. XX 물산, 회의실. 낮

(MTV 느낌으로-

활기차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진아와-)

향 미:(확신에 찬) 관이란 영혼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벌레가 덜 생기고 내구성이 강한
오동나무나 향나무 등에 옷칠을 하는 정도가 일반화된 기호였습니다!

진 아: 결국 나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디자인은 또 어떻습니까? 장례도 하나
의 문화이며 망자에게도 취향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장례 문화의 창이
될 영혼의 집, '유리관' 을 소개합니다!

(진아, 자신 있게 내어놓는 유리 관 샘플!

차트와 함께 리드미컬한 브리핑!)

향 미: 강화 유리를 사용, 내구성이 강하고 방충 효과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관 뚜껑을
진공 처리해 미생물 번식이 어렵습니다!

진 아: 양면 음각 샌딩 처리한 제품으로 무늬와 색상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려 품위와
실속 두 가지 면에서 동시에 만족하실 수 있구요,

향 미: 특히 원하시는 분에 한에 관 뚜껑에 고인의 사진 이미지 조각이 가능합니다!

진 아:(다른 관 샘플을 보이며) 이 작품은 저희 공방이 심혈을 기울인 '반포지효(反哺之孝)'
라는 작품명의 명품관으로서, 넓고 포근한 내부 공간 연출로 편안한 안방 분위기를
실현하였으며,

향 미:또한 짜맞춤 공법을 이용, 크리스탈 못을 사용하여 견고함과 중후함 면에서 일반
목관 제품과의 격을 두었습니다.

(차트를 덮으며-)

진 아:(단호한)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걸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파평 윤씨 일가의 미라가 발견되면서, 죽음을 넘어서고 싶어 했던 그들의 애절한 사연을 떠올리며 '꼭 썩어야 관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 미: 살아서 못한 효. 떠나신 후에라도 다 하겠다는 맘으로 한분 한분 열과 성의를 다해 만들 것을 다짐하며, 국내 굴지의 장의 업체인 XX 물산에 저희 영지공방이 영광스럽게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이때 노크소리 들리고, 들어오는-)

여직원:(미안한 미소) 어떡하죠? 조금 더 늦으시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보면-

진아와 향미, 텅 빈 회의실에서 브리핑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

향 미:(과장된 미소) 괜찮습니다. 기다리죠, 뭐.

여직원: 차 좀 갖다 드릴게요. 커피랑 녹차 있거든요.

향 미: 전 커피 주세요.

진 아: 저두 커피..아니 녹차..아니 뭐 마실까..? 아, 니가 커피니까 전 녹차 주세요.

(그리곤 향미에게) 근데 이 말은 내가 할까..?

(다시 브리핑 준비에 여념이 없는 두 사람.)

17. 다시 00 대학, 교수 식당. 낮

(식판을 들고 걸어오면서 얘기를 하는-)

상 민:(우울한)..사실 내가 요즘 많이 예민한 거 같긴 해..별 것도 아닌데 열 받고, 욱하는 버릇도 생기고..

태 화: 조울증.

상 민:..더 미치겠는 건, 집에 있으면 말아야..뭐가 되게 허전해. 뭐 잊어버린 거 같은 거..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없는 거 같은 거...

태 화: 진아.

상 민: 이씨, 확! (때리려다가는 자리에 앉으며)..거 왜 있잖아..되게 가려운데 도대체가 어디가 가려운지 모르겠단 말이야..분명 뭐가 빠졌어..뭐가 없어 지금. 집에...

(난감함 표정의 상민을 태화, 잠시 불쌍히 바라보다가는 뜬금없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려는지

눈을 깜박이며 시선을 돌리다가는-)

태 화:(문득) 못 보던 거네..?

(식당 한 쪽에 세워진 커다란 괘종시계.
상민도 무심결에 돌아보곤 밥을 먹으려다가는
문득 멈춰지는 손.
그리곤 다시 그 시계를 돌아보면-
뭔가 감이 오는 상민..!
그 시계에 점점 집중이 되면서...
상민, 점점 감이 확실해 지는 듯하자...
함차게 움직이는 시계추와 함께 1시를 알리는 시계의 괘종소리-
땡-!)

18. 상민의 아파트, 거실, 낮

(괘종소리와 동시에 얼빠진 표정으로 소파에 몸을 던지는 상민.
태화는 벽에 걸려있는 이국적인 느낌의 고풍스런 벽시계를 찬찬히 뜯어보고 있다.)

태 화: 이거 원래 시계추 없었던 거 아니야?

상 민:(초 예민) 넌 같이 산 놈이 그것도 기억 안 나냐?..그래, 그게 없었어..시계추..
시계추였어..

태 화: 이게 어디갔냐. 그럼?

상 민:..진야..뭐든지 반씩 나눈답시고 핫김에 내가 그걸 빼 준 거 같아..아 씨...

(얼굴을 파묻고 초 난감해 하고 있는상민을 바라보던-)

태 화:..알았으니까 더 큰일이네 이제...

19. XX 물산, 엘리베이터 안, 낮

향 미:(속 터지는) 아니 10분도 안 들고 들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준비하느라 쏟은
코피가 얼마데! 브리핑 한 번만 더 잡아 줘요!

(유차장에게 하소연을 하는 향미.

그 옆에는 진아가 시무룩한 얼굴로 말없이 서 있다.)

유차장:(능글한) 그래도 남골함은 관심 있다잖아.

향 미:납골함은 다른 공방에서도 하잖아요. 유리관은 우리가 처음인데, 국내 힘들면 외국
에서라도 관심 보일 수 있는 건데, 반포지효는 말도 못 꺼냈잖아요!

유차장: 반포지효, 좋은데...

(그리곤 진아를 바라보는 유차장의 느끼한 시선,
위로하는 척 등을 보이고 있는 진아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유차장: 윤 작가, 힘내요. 아이템은 굳이야!

(진아, 그런 유차장의 손길이 기분 나쁘지만 애써 표를 안내려 미소로 때우고,
그 미소를 오해한 유차장의 시선이 더욱 기름져 지며-)

유차장:(들으라는) 에이, 안 되겠다. 우리 윤 작가 때문에라도 브리핑 한 번 더 잡아야겠다!

향 미:(반색) 진짜? 언제? 진짜지? 진짜지?

유차장: 맨 입엔 가짜지!

향 미:(바짝 땀이 나는) 그 입에 제가 오늘 제대로 향 쏩니다!

애니타임(Anytime) 애니웨어(Anywhere), 고고! 오늘 저녁 어떠세요?

유차장: 진짜? 굳-! (진아를 힐끗 거리며) 근데 친구 하나 불러야 짝이 맞겠는데? 얼마 전에
혼자 된 친구 하나 있는데!

향 미: 굳-! 애도 돌아 온 애예요!

진 아:(아리는)... ..!

향 미:(아차!).. ...

유차장:(너무 반색) 굳-! 그럼 부르면 안 되지! 나랑 볼 태워야지! 어쩐지, 어쩐지 느낌이..!

(유차장, 거리낌 없이 진아의 손을 잡으며-)

유차장:(은근한)오래..되셨나. 윤 작가?

진 아:(불쾌하지만 어정정한 미소)..애기..해야 되나..?

유차장: 노우! 말은 무슨..압니다, 그 맘!

(쉽게 보는 유차장의 번들거리는 눈빛에

진아, 어색한 미소로 옥하고 치솟는 성질을 애써 참고 있다.

진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향미, 분위기를 진화하며-)

향 미: 참, 안되겠다 오늘은..우리 남편도 일찍 온다고 하고...

유차장: 굳-! 불러서 빨리 들어가시고, 빨리 안 들어가도 되는 진아씨, 진아씨 맘, 제가
받을게요! (개기름)..우리, 오늘 한번 옹팡지게 막 나가 볼까요?

(터지기 일보 직전의 진아!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리자.

유차장이 잡고 있던 손을 거칠게 빼내어

달히려는 문을 손으로 잡으며-)

진 아: 굳-!

유차장:(오해, 반색) 진짜?

진 아:(결국 쓰는) 내 맘 안다니까 굳. 내 타입 아니에요. 거기!

(진아, 멋있게 쏘아는 했는데 자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하자
애써 힘으로 버티며-)

진 아:(그래도 꾀꾀) 내 맘을 알아요? 나도 모르는 내 맘을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자꾸 문이 닫히자 두손으로 버티며)..이거 자꾸 왜 이래?..
(다시 유차장에게) 이보세요! 이혼하면 보이는 것도 반 인줄..(또 문에 힘을 주고는)..알
아요? 황당해서 정말..더 얘기 안 해도 되죠?..아, 그리고 병원 가보세요! 손에서 기름
나와요! 간 김에 정신병원도 한번 들르시던지!

(이쯤 되면 멋있게 엘리베이터에서 바람 소리를 내며 나갔어야 하는데
매정하게도 닫혀버리는 엘리베이터 문!
내리지 못한 진아, 그리고 그 뒤에 빨줄히 서있는 향미와..유차장.
어색함만이 가득한 엘리베이터 안.
그들은 그렇게 몇 층을 더 내려간다.)

20. 도심 어느 곳. 낮

(햇살이 맑다.

빌딩 숲 사이에 간단히 쉴 수 있도록 마련된 작은 공간.

한 쪽 벤치에 풀 죽어 앉아 있는 향미와 진아.

잠시 말이 없다가는-)

진 아:(자조적인)..아이템이 문제가 있었어. 이 맑은 날 왜 관 타령이었다니...

향 미:(위로하는) 힘 퍼! 우리가 날랜 년들이야. 세상이 못 따라 오는 거야, 우리를.

진 아:..브리핑 한 번 더 해보는 건데..결혼 3년에 남은 건 투지밖에 없어요...

향 미: 괜찮아, 일이 이것 밖에 없어? 끌리는 데로 사는 거야! 년 당분간 그렇게 살아도
돼..근데 유리 비석아이템은 좀 아까워, 그지?..그건 되는데..아니다, 누가 또 돌로깨고 그
럴라나?...

(밝게 위로하는 향미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진아.

잠시 시선을 돌리면-

저쪽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 청소부 아주머니 둘.

유리를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안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밖에서
서로 마주보고 닦고 있다.

마치 거울 장난을 연상시키는 그들의 모습.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진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21. 남이섬, 회상. 낮

(청명한 가을 하늘과 밝게 내리는 포근한 햇살 아래...
인적이 드문 정갈한 가로수 길...
그 길 가운데에 진아와 상민이 마주하고 있다...
담백 사랑을 담은 시선을 주고받는 두 사람...
이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는 진아,
마치 유리에 손을 대듯 조용히 왼손을 들어 올리면,
익숙한 상민, 역시 유리에 대듯 오른 손을 들어 그 손을 마주하고...
다시 진아의 오른손, 상민의 왼손...
진아의 고개가 왼쪽으로, 상민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두 사람의 거울 장난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만 그것은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그것이 너무 즐거운 두 사람...
마치 동화의 한 장면 같은 파스텔 분위기...
그리고 똑같이 입술을 내밀어 키스...
그렇게 거울 속 두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순간, 들려오는 엄청난 괴성!
음악, 끊기고, 두 사람, 놀라서 보면-
가로수 길 끝에서 커다란 해머를 치켜들고
죽일듯한 표정으로 괴성을 지르며 이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전 썬의 진아!-)

22. 다시 도심 어느 곳, 낮

(-그 모습의 진아가 달려가는 곳은
다름 아닌 아주머니 들이 닦고 있던 대형 유리!
진아를 발견한 두 아주머니, 해머를 피해 몸을 날리고!
진아, 기억을 부수려는 듯 풀스윙으로 온 힘을 다해 유리를 내려치면-
과장된 '퍽-'소리와 함께 산산이 내려앉은 대형 유리의 몇몇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는 진아의 너무나 통쾌하고 후련해하는 모습들!
이때 울리는 핸드폰 소리! 순간 환상에서 깨어나는 진아,
잠시 숨을 고르고는 우울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면-)

23. 곤충학 교수회 사무실. 낮

(곤충 학회 교수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안건은 '홍다리 사슴벌레 서식지 보존 대책'.
이들의 성향인지, 회의는 두런두런 소박한 반상회 분위기.
상민은 초췌한 모습으로 한쪽 구석에 박혀
골똘히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

회원 1:(차분한)..정부에서 토론회를 또 한 차례 미루는데 우리가 그냥 이려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회원 2: 뭐 1인 시위도 진행 중이고, 항의 서한도 발송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려 보죠?

회원 1: 그렇지, 이 선생? 정부에서 지금 호의적인데 괜히 건드릴 필요가 없겠지?

회원 3: 설마 자기들이 그냥 서식지에 가서 공사한다고 말뚝 박겠어요? 상식이 있지..허허...

협회장: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상민을 부르는) 어이, 김 선생!

상 민:(뭣 들었다)... ..

협회장: 자요? 김 선생!

상 민:(그제서야)..네?

협회장: 딴 생각해요? 어때요, 관사람들 좀 만나보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있어도 되겠어요?

상 민:(아직 얼떨떨한)아, 네..뭐, 공사 시점 연장은 약속했으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대화 통로를 유지 하면서 시계추 홍보에 주력하는 게...

협회장:..시계추?

상 민:(아차)아, 아뇨..홍다리 사슴벌레...

협회장: 그래요, 그렇다면 뭐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하고, 거 1인 시위할 때 자리 좀 지켜 줘요. 점심도 웬만하면 도시락 싸고, 안 그래도 이슈가 안돼서 죽겠는데 그래가지구 방송이나 한번 타겠어? 그럼 오늘 회의는...

(상민은 여전히 시계추 생각에 헤어나질 못하고...)

24. 진아의 차, 안. 밤

(운전석에 앉아 드링크제를 마시는 진아.
그리곤 침 호흡..마음을 가다듬으려는 의지다.
잠시 후 화장품을 꺼내 다크서클을 점검하는 진아.)

25. 커피숍, 앞. 밤

(길 건너편에서 커피숍 입구를 예의 주시하며 서성이는 상민.
꽤나 신경 쓴 차림새.
잠시 후, 진아가 나타나 들어가자 그제서야 상민, 커피숍으로 향하고.)

26. 동, 안. 밤

(진아 앞에 앉는-)

상 민:(반가운 척) 일찍 왔네?
진 아:(노력하는 미소, 그러나)..봤어, 주차장에 차 있는 거.

(인상이 굽히는 상민.
여전히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두 사람.
그러나 두 사람, 애써 티 안내려 노력 중이다.
진아도 꽤나 차리고 나온 모습.
두 사람, 잠시 어색한 채 말이 없다가는-)

상 민:(동시에) 잘 지..
진 아:(동시에) 잘 지..

(본의 아니게 말이 부딪히는 두 사람.
잠시 난감, 헛웃음으로 때우고-)

진 아: 잘 지내?
상 민:(오버하는) 아유, 좋지. 난. 넌?

(그 오버가 괜히 신경을 건드리지만 티를 안내는-)

진 아: 나두 좋아.

(결도는 두 사람의 대화.
다시 잠시 포즈.
이때 보면-
테이블 밑으로 진아와 상민, 똑같이 다리를 떨고 있다.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둘.
상민, 다시 말을 풀 방법을 찾다가는-)

상 민: 참, 예전에 비디오 빌린 거 있니? 나한테 전화 자주 와. 연체료가 사만 육천원인가.. 좀 갖다 줘. 니가 훔친 줄 알더라. 야. 내가 아마 아닐 거라곤 말은 했는데, 허허..

진 아:..내 번호 가르쳐 줘.

(상민, 자기 댄엔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본의 아니게 슬슬 진아의 비위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여전히 의식을 못하는-)

상 민: 아, 그러구 니 차에 아직 내 폰 번호 붙어있나 본데, 그거 좀 띠어 줘. 나한테 차 빼달라고 가끔 전화 와. 너 정신머리 없는 거..(아차 싶은) 아, 미안..건망증 심한 건알지만 우리 이렇게 된 상황에선 오히려 더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

(계속 진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상민의 말.

용케 참는 진아.

이때 저쪽에서 들리는, 제대로 날린 따귀 소리!

보면-

무슨 이유인지 소리를 지르며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사정없이 구타하는 여자!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속수무책으로 맞기만 하고!

주인과 웨이터 달려와 간신히 뜯어 말리면 여자 독설을 퍼붓고 나가버리고!

그제서야 화를 내며 따라 나가는 남자.

이 모습들을 보고는-)

상 민:(뿌듯한 미소) 참 대견해, 우리.

진 아:... ...?

상 민:위험하긴 했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저런 모습은 안보인 거, 최소한의 품위를 지킨 것만 해도 우린 참 현명한 거야, 그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면에서만큼은 너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어...가끔.

(순간 눈이 번쩍이는 진아!

동시에 옆에 있던 도끼로 상민의 머리를 찍어버리면-

앞머리 정 가운데에 그대로 꽂혀버리는 도끼!

난자하게 튀는 피!

그러나 웬일인지 고통스러워하질 않는 상민...

진아의 상상이다.)

진 아:(애써 화를 누르는)..용건이 뭐야. 말해.

(진아의 통명이 기분 나쁜 상민.

그러나 껍이나 인자한 미소로 위장하며

여전히 머리에 도끼를 단 채 얘기하는-)

상 민:..역시 년 칭찬을 해도 말이 길어지면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진 아:(삐릿!)... ..!!

(정상으로 돌아오는-)

상 민: 그래, 그만하고. 그 왜 내가 재작년에 영국 갔을때 사온, 벽에 걸려 있었던 시계 말이야,
그 안에 시계추, 그거 니가 가져갔거든. 그거 좀 줄래?

진 아:(발끈)그게 뭔데 내가 뭘 언제 가져가?

(진아의 소리가 커지자 흠칫 주위를 둘러보곤-)

상 민: 여전 하구나, 그 버릇!

진 아:(불끈) 뭐?

상 민:(훈계하는)내가 우정으로 하나만 충고 할게. 너 너무 전투적이야. 난 지금 싸우자는게 아니거든. 집에 있을 테니 찾아 봐라, 찾으면 줘라. 이게 내 얘기야..너, 변해야 산다. 지금 같은 성격, 사회 적응 힘들어. 세상 쉽지 않다, 너.

진 아: 충고 고마운데, 덕분에 이렇게 된 거야. 잊었어?

상 민:(할 얘긴 많지만 참으며)그래, 됐고..내가 줬다. 시계추 내가 줬는데, 내가 그게 없어서 많이 힘들다. 아퍼요. 그거 좀 주라.

진 아:(비아냥 공세)아, 그 예민결벽과다집착형 새가슴증후군? 그게 또 도지셨어?

상 민:(삐릿!)..또 시작이냐?..웬만하면 그런데 건드리지 말자..!

진 아:..항상 내가 먼저 시작이지?..근데 어쩌다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 쓰던 휴지까지 반으로 나눠서 가져간 사람이?

상 민:(술술 화가 나는)그래서 너 우리 동네 쓰레기봉투까지 가져갔어? 그게 시계 반 인줄알고 줬다. 왜!

진 아: 그럼 그거 내꺼내, 내가 그걸 왜 줬?..나 아직 안 잊었거든? 헤어질 때 나한테 얼마나 차갑게, 얼마나 매몰차게 굴었는지, 나 못 잊거든?

상 민:(순간 욕하는)그건 너두..(할 말은 많지만 참는)..좋은 친구로 남자..남들도 그러잖나.

진 아: 내가 한 말이야 그건. 나 같은 친구둔적 없다며?

상 민:(버럭)'좋은 친구로 남자, 어차피 친구도 없잖아?' 이게 말이야-?!

(상민의 말에 다들 돌아보는 손님들.

상민, 자기도 놀라 빨춤.)

주인, 웨이터에게-)

주 인:오늘 왜 이러냐, 씨..빨리 가서 주문받고, 커피 시키면 없다 그래!

(상민을 차갑게 노려보는-)

진 아: 그 얘기가 왜 나왔는데! 내 친구들 욕하는 게 당신 취미였잖아, 기억도 안 나지?

상 민:(이를 갈며 비아냥) 기억나, 지금도 욕 나오는 거 참는 중이야! 그 인간들, 더 먹어야 사랑 돼!

진 아:(빠릿)..사과해.

상 민:(할 말은 많지만 애써 누르며)..그냥 줘라, 시계 추. 나 그런 거에 미치는 거 알잖나.

진 아:(일어나려 하며)..그 시계. 시계추 없어도 잘 가.

상 민:(터지는) 장난해-? 나 요즘 돈다고-!!

(그와 동시에 힘껏 상민의 앞머리를 때려버리는 진아!

비명과 함께 머리를 감싸 쥐며 놀라는 상민!)

진 아: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년 안 돼. 그래, 그렇게 끝까지 년 니 얘기만 하면서 그렇게 살지! 년 뭐 변한 거 같애-?

상 민:(화가 치미는) 이런 씨..

(상민, 벌떡 일어나려하자 진아, 테이블을 확 밀어버리면-

'뿅-'소리가 나며 상민의 골반을 강타하는 테이블!

너무 아픈 상민, 비명도 못 지르고 주저 앉아버리고!)

진 아: 시계추? 기억나네, 이제. 무지하게 아꼈지 그 시계! 그래서 못 줘! 안줘!

(그리곤 나가던 진아, 분이 덜 풀린 듯 다시 돌아와-)

진 아:(독기를 뿜는) 덕분에 인생 재밌어 지네요, 김 상민 씨!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킬 것도 생기고! 경고하는데 웬만하면 나 건드리지 마, 예전의 나 아니야! 나 이제 무서울 거 없거든? 알았어-?

(일갈하고 단호히 뒤돌아 나가는 진아!

상민, 고통도 고통이지만 진아의 독기에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고!

그런 상민 근처에 엉겨주춤 서 있는 웨이터.

잘하면 주문을 받을 듯하다.)

27. 동, 주차장. 밤

(씩씩거리며 차에 타는 상민.

분을 삭이려 다급히 명상 포즈도 취해보지만

이내 소리를 지르며 흥분에 떨면서-)

상 민:..잘했어! 갈라지기 진짜 잘했어! 나이스, 김 상민! 니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안줘? 못줘? 어디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와. 이

제는 인성 파탄이 끝을 보는구만!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독종이랑 3년씩이나...

(분에 못 이겨 씩씩대면서 차를 출발시키려는 상민.

이때, '쿵'하고 받히는 그의 차!
놀란 상민, 내리면-
앞 차체가 아작이 나있고!
상민 보면-
진아의 차다!
진아도 본의는 아닌 듯 순간 난감한 얼굴.
그러나 이미 옆질러진 물, 상민을 차갑게 쏘아보곤 급발전하여 가버리면-
너무나 오해로운 상황!
흥분의 극에 올라 말도 잘 안 나오는-)

상 민:(바라 바라) 너 가? 야, 거기 안 서? 그냥 가? 좋아, 그냥 간다?! 그래, 너 무슨 꼴
당하나 한번 보자!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에게) 아저씨, 저 차 그냥 치고 가는 거
봤지? 봤지?

(주차장에서 혼자 길길이 날 뛰는 상민...!)

28. 도로, 차 안, 낮

(운전을 하고 있는 진아와 그 옆의 향미.
뒤에는 순진한 인상의 대호 건설 남직원이 타고 있다.
열성적으로 오버를 하며 공방을 PR하고 있는 진아와-)
향 미:..대호 빌딩, 서린 인테리어로 텅키로 넘어가는 건 말이 안돼요, 안 그래 윤 작가?
진 아: 어차피 총별로 다시 PT하실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자격이 좀 미달이지만, 기획서
랑 포트 검토만이라도 좋다는 거죠!
향 미: 아니 이럴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낫술이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죠! 애니타임
애니웨어 고곤데..참, 친구 부르셔도 되거든요?
진 아: 난 빨리 안 들어가도 되더라구, 그지?
향 미: 맞아, 난 남편 불러도 되구! (남직원에게) 우리 오늘 옴팡지게 한번 달려볼까요?

(저번 일 때문에 입이라도 맞춘 듯 막힘 없이 떠들어대는 두 여자.
뒷좌석의 남직원, 두 여자의 수다에 얼떨떨한 느낌.)

진 아: 저희 자신 있어요! 저희 공방,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여태껏 정직과 성실, 이것만큼
은 누구에게도...

(이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경찰 마이크 소리-)

경 찰: 2768, 2768 가변에 차 붙이세요!

(진아, 놀라 보면-
옆으로 붉는 경찰 차.)

진 아:... ...?
남직원:... ...?

29. 00 경찰서, 구치소. 낮

(경찰서 내 구치소.
잡범들, 어딘가를 힐끗거리면-
한쪽 구석에 보이는...진아.
무릎을 세우고 앉아 미동도 않는 그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이미 분노를 넘어 선, 표독이 자리하고 있는 그녀의 피어린 눈빛에서-)

30. XX 쇼핑몰 내 극장, 복도. 밤

(핸드폰을 받고 있는-)

상 민:(난감, 버럭) 내가 했어, 뺑소니 신고 내가 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바로 취하했다니
까요? 물어보라고, 그 경찰한테! 사람들이 진짜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진짜..이제
어떡할 거요, 당신들, 영? 당신들이 나 보호해 줄 거야?...

31. 동, 안. 밤

(죽상인 얼굴로 태화 옆 자리에 주저앉은 상민.
보면-
영화가 상영 중인 한산한 극장 안.
상민, 잔뜩 난감해 하다가는 순간 원가를 잠시 따져보더니-)

상 민:(무심코) 진아, 여기로 오겠는데!

태 화: 뭐?

상 민:(확신) 개 와. 나 분명히 찾을 수 있어, 개...(하고는 후다닥 가방을 챙기며) 간다!

태 화:(잡으며) 밥은 니가 사야지! 말이 돼? 진아가 여길 어떻게 알고?

상 민:(다급히) 놔, 임마! 넌 몰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찾을 수 있어! 이거 놔!

(상민, 어렵게 뿌리치고 급하게 자리를 뜨려하면-
이때 강렬한 효과음과 함께 뒤쪽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실루엣으로 들어오는 살기어린 모습의 진아!
기겁하는 상민과 태화!
영사기를 통과하는 그녀, 스크린을 뒤덮고!)

상 민:(울상, 태화를 원망하는)..봐, 임마..!

(긴박한 음악, 터져 나오며-
상민, 툰다!
굳은 표정의 진아, 운동화를 고쳐 신고는 뛰기 시작하고!)

32. 대형 쇼핑몰, 거리. 밤

(보면, 프롤로그의 그곳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것이 아닌, 쫓기는 상민과 쫓는 진아!
사람들, 구경하기 시작하고!
청소를 하다가 나와 보는 사람-
프롤로그의 폭죽 베이커리 아저씨!
상민, 그때처럼 에스컬레이터를 막무가내로 뛰어 올라가고!
진아, 그때처럼 행인들을 부딪치며 뛰지만 훔치는 것은 눈물이 아닌 땀!
속도를 붙이는 진아!
반면 상민은 어디로 뿔까 허둥대다가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점점 속도를 높이는 진아-
갈피를 못 잡던 상민, 결국 다급한 마음에 뒤돌아서면-
동시에 날라드는 진아의 발길질!
그대로 맞고 뒹구는 상민!
사람들, 탄성과 함께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하고!
주위의 전광판들, 모두 진아와 상민의 모습으로 도배되고 있다!
다시 두 사람, 사람들을 헤치며 추격전을 벌이면-
방거리를 질주하는 진아.
그를 피하며 거칠게 넘어지는 오토바이, 역시 그때 그 사람.
막무가내로 차도를 뛰는 상민.
급정거를 하면서 클락션을 울리며 욕을 하는 그때 그 사람.)

33. 상민의 아파트, 거실. 밤

(음악 연결되면서-
벌컥 열리는 문!
신도 벗지 않고 들어오는 진아!
여전히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무표정!
정갈히 정돈되어 있는 거실과 서재를 진아,
거리낌 없이 훑으려 놓기 시작!
난장판이 되는 실내!
그러다 문득 보면-
유리로 된 곤충 집 속의 흉다리 사슴벌레. 우혁!
음악, OUT.
그녀와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우혁에게-)

진 아:(잔인한 미소)..우혁이, 오랜만이네..?!

(우혁의 시선으로 본, 곤충의 수정체로 보이는
진아의 그로테스크한 모습!
공포에 질리는 우혁, 나무에서 떨어지고!)

34. 00 대학 축산과, 우사 전경. 낮

상 민:(표효하는 소리) 으아아-ㄱ!

35. 동, 안. 낮

(분노에 떠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상 민:..죽은 건 아니고 움직이지만 않는 거야..천적 같은 걸 봤다거나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면 나타나는 증상인데..원래 우리 우혁이. 그러질 않거든..얼마나 강한 앤데..이씨..

(태화는 옆에서 젖소 '지희'의 털을 빗겨주고 있다.
상민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지희를 매만지고 있는 태화의 표정은
행복에 빠져있고.
여전히 자기감정에 빠져 이야기를 하는-)

상 민: 어제 밤새 집안 다 치우고 내가 뭐했는지 아냐? 사이트 검색했다. 혹시 몰라서 업

없으면 은근히 미친다! 절대 주지 마! 알았지?

진 아: 주고 싶지도 않지만, 어딴지도 몰라.

진 숙:(또 뜯금없이 씩씩대며) 아, 니 남편 내가 죽여주께, 내 남편 니가 죽여주라! 그럼 모르잖아, 아무두! 죽는 놈들두 황당할 거야, 응? 내가 왜 재한테 죽나 하구, 킁킁!

진 아:(걱정스런) 우리 대호 빌딩 PT, 날라 간 거지?

향 미: 어차피 자격도 안됐었어! 신경 꺼! 그리구 너두 이제 운동 좀 하고 뽕도 만들고 그래! 그리구 즐겨! 프리! 좋잖아! 왜 못해?

진 숙:(혼자 다짐)..갈라서고도 괴롭히는 인간들이 제일 나빠! 내 남편이건 니 남편이건 이제 걸리면 죽는 거야..!

(진아, 향미와 진숙의 말에 씩씩한 미소...)

37. 진아의 전원주택, 거실. 밤

(조용하고 낭만적인 음악이 흐르고...
어렵게 선반 위의 반질고리를 내리는 진아.
여전히 속이 안 좋은지 바늘을 골라 따려고 한다.
이때 들어오는-)

인 철:..비는 안 올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비닐로 덮어놨어요.
진 아: 오늘 들어온 재료 좋지?
인 철: 네, 이번 샘플 제대 룰 거 같아요..아직도 속 안 좋으세요?

(그리곤 바늘을 뺏으며-)

인 철:..이렇게 해보세요..

(피를 순환 시키려는 듯, 손으로 진아의 등을 천천히 훑어 내리기 시작하는 인철...
그리고는 등을 타고 그녀의 어깨를 지나 팔을 훑기 시작하는 그의 손길...
그 느낌이 자못 애로탁하다...
진아, 애써 담담해 보려하지만 긴장이 느껴지는 표정...
그런 진아를 느끼는 듯 얼핏 인철의 얼굴에 스치는 미소...
그리곤 진아의 손가락을 들고 따려하자,
진아, 무서운 듯 얼굴을 찌푸리면...)

인 철:(미소)..안 아파요..살살 할게요..저 잘해요...

(어쩌면 인철은 평범하게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왠지 낯익게 들리는 진아.

자기도 모르게 붉어지는 표정을 최대한 숨기려 노력하고...
바늘을 찌르는 인철.)

진 아: 아!

인 철: 아파요?

진 아: 아, 아니..

인 철:..어 피가 안 나네..?

(하고는 진아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기 시작하면...

더욱 당혹스런 진아...

인철, 진아의 손가락을 빼어 보면,

까만 피가 올라온다...)

인 철:(장난스런 미소) 아드게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이게 낫죠?

(조금은 당혹스런 얼굴로 그저 고개를 끄덕이던 진아,

그리곤 자기도 모르게 트림, 끄으-ㄱ..!)

인 철:(신기한)..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진아, 조금은 바보 같은 어정쩡한 웃음...)

38. 홍대 앞, 거리. 밤

(음악 연결되면서...

다양한 점포들의 거리를

다양한 만큼의 불빛들이 몽환적인 연출을 하고 있고...

천천히 그곳을 구경하며 지나는 진아...)

39. 영국, 어느 거리. 밤

(역시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거리를 지나고 있는 상민.

그 뒤에는 분주히 기웃거리는 태화도 보이고...

이국적이고 고풍스런 낭만이 느껴지는 영국의 거리...)

40. 다시 홍대 앞, 거리. 밤

(거리를 지나던 진아, 문득 어딘가를 발견하면...)

41. 다시 영국, 어느 거리. 밤

(정갈한 시계점을 발견한 상민.
무슨 생각에선지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고...)

42. 홍대 앞, 가발가게. 밤

(흥미로운 눈길로 가발을 구경하는 진아...
마치 처음 본 풍경처럼 그녀의 얼굴엔 신기한 미소까지...
조심스레 가발을 써보는 진아...)

43. 영국, 시계 점. 밤

(전 썬의 벽시계를 고른 상민에게
인자하게 생긴 노점원이 푸근한 미소로 얘기를 한다.)

노점원:(영어)..이 시계의 전통이죠. 전통은 오래돼서가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상 민:(영어, 조금은 난감한 미소)..갑자기 무슨 말을 써야할지...

노점원: 결혼하셨습니까?

상 민: 1년 됐습니다.

노점원: 훌륭합니다. 그럼 천사 같은 아내에게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선물하세요..누가 압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노점원의 조금은 판타지한 느낌의 미소...)

44. 상민의 아파트, 거실. 밤

(시계를 노려보고 있는 상민.

위 썬의 분위기와는 완전 딴판인 초췌한 몰골의 그.
맥주를 마시며-)

상 민:(비장한 코웃음)..흠, 천사?..내 기필코 찾는다..!

(음악, 서서히 줄고...)

45. 진아의 전원주택, 거실. 아침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장이 덜 깬 진아.
머리에는 어제 산 핑크 가발이 씌어져 있고.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던 진아,
문소리가 나자 놀라며 가발을 벗어 숨길 곳을 찾다가
싱크대 밑에 넣어 버리고.
신이 나 뛰어 들어오는-)

향 미:(호들갑) 야야, 빨리 옷 입어!

진 아: 왜?

향 미: 푸르나 홈 쇼핑, 김 팀장 연락 왔잖아!

진 아:(반색)..진짜?

향 미: 상품 하나 빵구났단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저번에 했을 때 매출 안
나와서 김 팀장, 자기 평생 볼 일 없을 거라고 이를 갈더니만, 급한가봐, 새벽부터
전화질이야!

진 아:(좋아 죽는)어떻게, 어떻게!!

향 미:(다급한)그냥 저번처럼 똑같이만 하면 되는 거고, 아, 준비도 대강해 어차피 가서 또
하니까 그러구..야. 우리 이거 잘해야 한다, 지금 재고 장난 아닌 거 알지? 너 또 뭐
갑자기 경찰서 잡혀간다거나 그럴 일 없겠지?

진 아: 애는 중요한 일 앞두고 재수 없게!

(흥분된 표정으로 서두르기 시작하는 진아.)

46. 동, 현관 앞. 아침

(다급히 뛰어 나오던 향미와 진아. 문득 서면-
초췌한 모습으로 현관 앞에 서 있는 굳은 표정의 상민!
그를 보고 개들 엄청 짖어대고 있고.
당황하는 진아와-)

향 미:..오..랜만이네요?

상 민:(무시, 진아에게)..시계추 줘라.

(평소와는 분위기가 다른 상민이 긴장을 유발하지만-)

진 아:..어딴지 몰라.

상 민: 어렵하겠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찾으러 왔다.

진 아:(비정상한) 들어가만 봐. 무단 가택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까..!

상 민:(비장한)..마지막이다..내가 찾아서 가져갈게!

(진아, 상민의 비장함에 잠시 흔들리는 듯하자-)

향 미:(헛기침으로 분위기 환기)흠흠..늦네...

진 아:(그러자 마음 다지는, 버럭) 안돼-!

(진아, 찬바람을 일으키며 가 버리고.

고소한 듯 따라가는 향미.

그런 두 사람을 표정 없이 바라보는 상민.

개들, 여전히 열심히 찾아대고 있고.

무표정이 아려보는 상민.

그러자 흥물스런 복서들, 더욱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찾아댄다.)

47. 동, 안. 아침

(조용히 뒷문이 열리면서 조심스레 들어오는 상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밖을 살피면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곤 급하게 나가 어질러진 실내를 보며

인상을 구기는-)

상 민:(혀를 차며)..어쩌면 예상이랑 한 치가 안 틀리냐...

48. 진아 차, 안. 아침

(운전을 하다 문득 무언가 생각이 난-)

진 아: 아차, 개밥..!

향 미: 갑자기 그 인간 나타나서 그랬지 뭐..그 인간 때문에 개두 굶네..!

49. 진아의 전원주택, 안. 아침

(조심스레 안을 둘러보는 상민.

시계추를 찾는 듯 가끔 여기저기 뒤져도 보지만

진아의 사는 모습이 궁금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보이진 않고.

저 쪽에 보이는 실물 크기의 유리관과 유리 비석.

그것들을 보곤 흠칫 놀라기도 하는 상민.

찬장 문을 열면-

꽤 많은 양의, 아무렇게나 모아져 있는 개봉이 안 된 각종 술병들.

무심한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던 상민, 문을 닫고.

조용히 침실 문을 열어보는 그.

커튼에 가려져 어두운 실내.

간간히 들어오는 아침 햇살로 보이는-

침실을 잘 사용하지 않는지

침대 위에는 아직 풀지 않은 짐들 몇 개가 그냥 올려져 있고.

음악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면서-

소파에 놓여 진 담요와 베게...

상민, 왠지 진아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 조금은 표정이 무거워지고...

그러다가는 문득 뭔가를 발견하면-

벽 한쪽에 작은 핀으로 꽂혀있는

언젠가 상민이 오렸던, 진아만 남아있는 사진..!

잘려진 반쪽의 과거...

진아의 모습 옆 공허한 공간이 상민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때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기겁하는 상민, 전화를 받으며-)

상 민:..네..네? 아 오늘 순번이 접니까?..종합청사 앞이요..네, 네 늦지 않고 가겠습니다...

(정말 놀랐는지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민.)

50. 동, 앞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현관 밖으로 나오는 상민.

이때 맹렬히 터지는 개 짖는 소리!

상민, 다시 한 번 기겁하고 보면-

이빨을 드러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한 복서 두 마리의 목줄을

힘겹게 붙잡고 버티고 있는..진숙!

진아에게 개밥 부탁을 받은 진숙도 안에서 나오는 상민을 보고 놀라 정지 상태!

상민과 진숙, 둘은 그렇게 잠시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도 못하고

배고픈 복서 두 마리만 상민을 향해 맹렬히 짓고 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며-

상 민:(개를 견제하며 당황)저, 저기요,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저는 여기 뭐 훑치러 온 것
도 아니고..안면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진아 친구 되십니까?

진 속:(여전히 긴장)... ..

상 민: 전 진아 남편, 아니 전 남편 되는 김 상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진 속:... ..!!

상 민: 저 모르시겠어요? 우리 한 두 번 뵈 적 있는 것 같은데..

진 속:(뭔가 많은 생각이 오가는)... ..

상 민:(다행이다 싶은, 반색)..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진 속:(기억난다! 하지만 무심히)..아뇨.

(진속, 그 말과 동시에 쥐고 있던 목줄을 놓으면-

그대로 상민에게 달려드는 복서들!

상민, 기겁하며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달린 현관문을 열어 먹을 듯 맹렬히 짓어대는 복서들!

진속, 문득 보면-

거실 베란다가 열려있다..!

순간 많은 생각이 스치는 진속!)

51. 종합청사 앞. 낮

(목에 '홍다리 사슴벌레 서식지 보존' 어찌구 하는 피켓을 들고

상민 대신 1인 시위 장소에 서 있는..태화!

짜증스런 표정으로 상민과 통화하고 있다.)

상 민:(소리) 피켓은 잘 찾았지?

태 화:..아, 근데 난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상 민:(말 끊으며)야, 간호사가 부른다, 나 가보게. 나 어쩌면 못 갈지도 몰라, 상태 안
좋아. 그리고 그러구 있으면서 전화 같은 거 하면 안 돼. 자리 비우지도 말고,
알았지? 미안해! 부탁해!

(상민, 전화를 끊으면-

태화, 짜증을 참는 도 닦는 표정으로 조용히 풀더를 달고는 옆을 보면-

피켓을 들고 있는 이주 노동자, '자스메'.

'우리도 사람이다' '이주 노동자 권익 보호 위원회'라는 구호의 피켓이 자못 비장해 보인다!
깜깜한 태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어정쩡히 피켓을 들어보고...)

52. 푸르나 흥쇼핑 스튜디오, 분장실, 낮

(분장을 받고 있는 진아와 대본을 점검하고 있는 향미.

잠시 후 들어와 짐을 들고 나가던-)

진 행:(기분 좋은)오늘 분위기 괜찮아요, 바로 전 타임, 컴퓨터였는데 시간 매출 30억 넘었어요, 잘 하세요-!

(그 말에 향미와 진아, 기대와 흥분이 만땅이다..!

이때 그 옆을 지나던 PD,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다급히 들어와-)

P D:(심각한) 이번에도 플로어에 두 분 다 올라오십니까?

향 미:(애써 밝게 오버하는)아뇨, 이번엔 윤 작가 혼자 올라가요! 베틀도 낮찍이 있지! 나 메이크업도 안하잖아요!

P D:다행입니다! 그날 향미씨 NG덕분에 시청률 까인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날 향의 전화가 정말 말도 못하게..기록이라는 말도 있고..하여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는 심각한 PD의 뒷모습을 야리며-)

향 미: 아, 저 자식 대사 몇 번 씹은 거 가지고 무자게 심각하네. 나 안 올라간다니까 화색 도는 것 좀 봐! 방송 도중에 그냥 확 다 벗고 뛰어 들어갈까 보다!!

53. 다시 종합청사 앞, 낮

(짜증스런 얼굴로 시계를 보며 상민을 기다리는 태화.

그 옆에 있던 이주 노동자 '자스메'가 화장실이 급한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태화에게-)

자스메: 저기, 아저씨..나 화장실..이거 좀..나 급해..

(자스메, 태화에게 피켓을 부탁하고는 급히 화장실로 뛰어 가려다가는-

청사로 향하는 관공서 차량을 발견하고는 그!

급히 다시 달려와 태화에게서 피켓을 뺏어드는 자스메,

절박하게 자신의 주장을 소리치면서

차량에 피켓을 흔들며 보이며 쫓아 뛰어가고!

비장한 자스메의 모습을 바라보던 태화.

생각이 많은 얼굴로 잠시 숙연해 지다가는 문득 돌아보면-

순간, 사색이 되는 얼굴..!)

태 화:(너무 놀라)...헉!

(보면-

방송국 차에서 내리는 기자와 카메라 맨!

태화가 목표인지 장비를 챙겨들며 바삐 걸어온다.)

태 화:... ...!!

기 자:(다가와)수고하십니다. 잠시 인터뷰를 좀 할까하는데요, 괜찮겠죠? (카메라맨에게)
시간 없으니까 빨리 준비합시다..!

(태화가 대답할 틈도 없이 바쁘게 준비를 하는 카메라맨과-)

기 자:(카메라를 보며)물링하면 얘기해 줘요...

태 화:(초 난감)..!!

54. 푸르나 홈쇼핑 스튜디오. 낮

(녹화 준비를 하고 있는 스텝들이 보이고.

분장을 끝내고 한쪽에서 대본을 의논하고 있는 향미와 진아.

이때 울리는 핸드폰.)

진 아:..네.

상 민:(떨리는 목소리)..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55. 상민의 차, 안. 낮

(강변도로를 달리며 전화를 하고 있는 상민.

얼굴에 반창고며 생채기까지, 전 썬의 사투가 그대로 느껴지고.

표정이 매우 비감한-)

상 민:(울음 섞인)..분명히 마지막이라고 까지 했는데..그게 그렇게도 싫었니..?

56. 다시 푸르나 홈쇼핑 스튜디오. 낮

(진아, 상민의 분위기가 이상하지만 독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면-
다시 올리는 핸드폰.

망설이던 진아, 향미의 눈치를 보고는 일어나 걸어가며 전화를 열며-)

진 아:(소리대신 표정이 큰)왜이래 자꾸-!

상 민:(소리)..나. 너 저주해..!

진 아: 해! 해! 언젠 안했어?

57. 다시 상민의 차, 안. 낮

(창밖을 보며 영세적인 분위기의-)

상 민:(뜬금없는)..아..한강이 보이네..누군가를 저주하기엔 너무 좋은 날씨가..나..너무
힘들다..

58. 다시 푸르나 홈쇼핑 스튜디오. 낮

(진아, 느낌이 안 좋은지 서서히 긴장되어 간다...)

상 민:(소리)..세상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어..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녀...

진 아:(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

상 민:(억누르는 떨림)..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갑자기 버럭) 너야-!너 때문이야-!

59. 다시 상민의 차, 안. 낮

상 민:(악 받쳐 절규하는) 널 만나서 이렇게 됐어-! 너라는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어,어..아아-ㄱ!

60. 다시 푸르나 홈쇼핑 스튜디오. 낮

(상민의 비명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강렬한 충격을 들려오고!

너무 놀란 진아. 입을 다물지 못한다..!!!)

61. 다시 상민의 차, 안. 낮

상 민: 우헤헤헤헤!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상민.

핸들 앞으로 던진 핸드폰을 다시 주워들어

아아아~! 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다시 던지며 즐거워하고!

진아가 들은 강렬한 충격음은 이것 때문!

상민, 즐거워 죽는다!)

62. 다시 푸르나 흥쇼핑 스튜디오 와 부조. 낮

(반면 얼굴이 하얘진 진아.

그러나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이때 부조에서 들리는-)

소 리: 자, 스텐바이, 3분전입니다..!

(향미에게 다가오는-)

김팀장: 윤 작가는?

향 미:(부르는) 진아야!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리는 진아.)

김팀장: 이거 황금 시간대예요, 윤 좋은 거야, 영지공방! 잘해, 진짜 마지막이야!

향 미: 쓴다니까요!

(진아, 애써 김 팀장에게 웃음을 지어보이지만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부조에서 이야기하는-)

P D:(여유가 생긴 자신 있는 목소리)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플로어 점검하고...

(무대에 오른 진아.

향미가 여전히 진아에게 대본을 체크해 주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 표정이다.)

다시 부조에서-)

P D: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진아, 애써 불안을 무시해 보려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가중이 되고.
향미는 긴장 때문인 줄 알고 진아를 다독이는데.)

P D:(모니터의 진아를 확인하고) 자 다들 비키고, 카운터 갑니다- 5..

(더욱 의심과 불안이 짙어지는 진아...
PD의 카운터가 계속되자-
결국 내려가는 향미의 손을 잡고 마는-)

진 아:(떨리는)..향미야, 저기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대본을 보며 카운트를 하던 부조의 PD,
..2..1을 외치며 모니터로 고개를 돌리면-)

P D:(놀라는)억!

(당황함이 역력한 어정쩡한 미소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향미..!)

63. 몽타주

(긴박한 리듬, 흐르고!

-교통정보 상황실.

전화를 받는

직 원: 네, 교통정보 상황실입니다..!

-진아의 차, 안

전화를 끊는 진아, 걱정스런 표정이다.
초조한 듯 망설이다가 다시 전화를 하는 진아.

-00대학, 곤충학 과 사무실.

전화를 받는

조 교: 아뇨, 연락 없으셨는데요..?

-상민의 본가.

차가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 상민의

모 친:..애기, 니가 웬일이냐?

-강변을 달리는 진아의 차, 안

불안이 심해지는 진아.

전화가 오고.

진아, 급하게 받으면, 교통 정보 상황실의

직 원:(소리)아까 전화한 분이시죠?

-00병원, 응급실.

응급실로 뛰어 들어오는 진아.

비명소리가 나서 가보면, 상민이 아니다.

난감한 진아.

-XX 대학 병원, 응급실. 해질 무렵.

낯패스런 얼굴로 걸어 나오는 진아.

또다시 다급히 길을 재촉해 보는 그녀의 모습, 멀리 보인다...

리듬, 즐고...)

64. 00대학 교수 기숙사, 태화 방. 밤

(사발면을 먹고 있는 상민.

T.V에서는 뉴스가 방송중이고.

상민, 라면을 먹으면서 내선 전화로 다이얼을 눌러보지만 받지를 않는지-)

상 민:(흔잣말)아, 이 자식, 내 전화는 받으라니까...

(이때 T.V에서 들리는 뉴스-)

아나운서:(소리)..종합 청사 앞이 새로운 1인 시위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 조용히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1인 시위자가 있어 취재해 봤습니다.
안 상훈 기잡니다!

(그 소리에 상민, 먹던 라면을 토해내곤 놀란 얼굴로 보면-
완전히 얼어붙은 태화 옆에서 기자가 멘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태화가 들고 있는 피켓은 '홍다리 사슴벌레..'가 아닌
자스메가 들고 있던 '우리도 사람이다'!
피켓이...바뀌었다!!
상황을 모르는지 그래도 피켓만큼은 잘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손에 힘이 와락 들어간 완전 정자세의 태화!)

기 자: 무모한 열정의 외침보다는 금 같은 침묵의 힘! 한 시위자가 이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가 자료화면으로 태화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기 자:(태화에게)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태 화:(초 경직. 먼 산을 보는)... ...;

기 자: 내국인이 이주 노동자를 위해 시위를 하시게 된 동기는 뭐죠?

태 화:(?)... ...;;

(다시 태화 옆에서 멘트를 하는-)

기 자: 1인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시위자는 과격한 구호나 거친 몸싸움보다도 더욱
강한 의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시위 문화에 좋은 본보기가
될...

(상민,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고..

기자 뒤로, 조심스레 들고 있는 피켓을 확인하는 태화..

그 너머로 저 멀리 힘겹게 달려오고 있는 자스메의 모습도 보이고..

이제는 아예 멍한 표정의 상민...딸꾹질.)

65. 00대학 기숙사 건물 앞. 밤

(다급히 뛰어 나오는 상민.

뿔뿔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허둥지둥 어디론가 달려간다.

이때 어디선가 그를 쫓는 시선..)

66. 한적한 교외 국도. 밤

(씬27, 진아의 접촉 사고 때문에 렌트한 경차 안에서 급하게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상 민:(찢찢대는) 아뇨, 협회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제가 원래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축산과 교수데요, 그 친구가 평소에 곤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물론 한 국사람이죠..아니, 저도 그 친구가 왜 '우리도 사람이다'를 들고 있었는지 전혀 감이 안잡히는...예, 하여간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상민, 돌아버릴 지경이다!
잠시 숨을 헐떡이던 상민,
그러나 이내 화가 치솟는지 핏발이 서는 눈으로 화풀이 하듯-)

상 민:(소리치는)다 너 때문이야-! 윤 진아,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단 말이야-! 죽자! 같이 죽어-! 나와, 일루 나오란 말이야-!

(이때, 느닷없이 뒤에서 상민의 차를 그대로 들이 받아 버리는 차!
기겁하는 상민, 간신히 중심을 잡고 보면,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 진아의 짙..!
울음 끝인 듯 눈에 번진 마스크라가 기괴한 살기어린 그녀의 모습!
긴박한 효과음 깔리기 시작하고-!
이미 분노를 넘어선 그녀의 표정 그대로 진아, 다시 상민의 차로 돌진하면
'쿵-'하면서 휘청하는 상민의 차!
너무 올라 창밖으로 진아에게 소리치는-)

상 민: 너 왜 이래? 미쳤어?
진 아:(버럭)그래, 미쳤다! 너 때문에 내가 미쳤다-!

(진아, 거칠게 다시 핸들을 꺾으며 상민을 재차 공격하려하면-
공포에 질리는 상민, 도망가기 시작하고!
도로 옆 구멍가게 평상에서 한가롭게 막걸리를 마시던 어르신들,
난데없는 한밤의 카체이싱에 그저 멍한 표정...
그런데 생뚱맞게 그들의 뒤를 따라 달리는 타조 한 마리?!
그 모습 역시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막걸리 어르신들.)

어르신1:..저거 니 집 타조 아녀..?

(한편 멍하거나 말거나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올듯한 진아는 다시 핸들을 꺾어 상민을 공격!
드디어 터져 나오는 상민의 비명!)
상 민:(버럭)장난이 심하잖아-!
진 아:(버럭)장난 같으면 시작도 안했어-! (다짐하는)..넌 오늘 내 손에 죽는 거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민, 무의식적으로 반격이라고는 해보지만
경차와, 짚..역부족이고!
가변에서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딱지를 끊던 경찰,
황당해하며 이들을 쫓기 시작!
그러나 진아의 공격은 멈출 줄 모르고!
경차의 뒤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박아버리는 짚!
그러자 경차의 트렁크 부분과 짚의 앞 범퍼가 끼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짚 앞에 매달린 꼴이 된 경차를 진아, 핸들을 자유자재로 돌리면서 흔들면-
경차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민의 처절한 비명!
상민은 브레이크, 진아는 악셀레이터!
스키드 마크를 내며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두 대의 차!
진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차를 가드레일에 긁으면서 속도를 붙이면-
거친 파열음과 함께 불꽃이 작열하면서 상민, 거의 혼비백산이다!
이때 저 멀리 들리는 기적소리!
진아, 보면-
저쪽에서 화물 열차 하나가 힘차게 연기를 뿜으며 진아의 차와 함께 달리고 있고!
이미 통제 불능의 진아, 무슨 생각에선지 힘 있게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기차를 추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핸들을 꺾어 철길 건널목을 향해 속도를 높이면-
진아, 앞에 매달린 상민의 차를 기차와 충돌시키려는 생각이다!
기차, 진아의 차를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려대고!
그러나 진아는 기차를 향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눈앞으로 빠르게 달려오는 기차를 보면서 차 안에서 어찌지도 못하고
비명만 질러대는 혼절 직전의 상민!
절대 절명의 위기!
이를 악무는 진아, 끝까지 가보리라 눈발에는 핏기까지 세우는데!
그러나, 결국엔 철길 건널목 바로 앞에서 핸들을 꺾어버린다..!
옆 논길로 구르는 짚과 앞에 매달린 경차..!
효과음 OUT!
화면 OUT!
잠시 후-
암전 위로 들리기 시작하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화면 밝아지면-
구겨진 경차 안에서 힘겹게 눈을 뜨는 처참한 상민.
몸을 일으켜 보려하지만 운전석에 끼었다.
절망스런 상민..
이때 구급차 소리가 가까워 오자-)

상 민:(절박하게 소리치는)..살려줘요..나 좀 여기서..꺼내줘요..!

(구급 요원들이 오고.

상민을 꺼내려는 그들에게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엉살 섞인-)

상 민:(나름 처절한 포효)아악-! 살살..천천히 천천히..아악-!

구급요원:..거기 안 만졌거든요..?

상 민:(혈떡이며)..나..나 어차피 여기서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얘기해 두는데 나 이렇게 만든 범인, 여자에요! 7901282013415 윤진아! 꼭 기억해 뒀어요! 윤진아! 내전와이프! 별 집에 빛날 아! 어쩌면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죽었으면 잘된거 구 살았으면 꼭 잡아요! 이게 내 유언이야! 혼잔 가지마, 당해!..

(상민의 오버에 구급 요원들, 절래 절래.

한참을 떠들던 상민, 문득 고개를 들어 보면-

저쪽에서 상민을 바라보며 씨익 웃고 있는 처참한 모습의 진아!

산발한 머리에 얼굴에 흐르는 핏줄기까지..그 모습 야차와 다름없다!

기겁을 하는 상민!

진아, 그런 상민을 보고는 더욱 과기스럽게 미소를 띠우며 손에 든 원가를 보여주면- 라이터다!

불길한 상민, 보면-

똑똑..차에서 흘러 내려 이미 진아의 발 앞까지 닿아있는 휘발유..!

그녀의 의도를 눈치 챈 상민!

공포에 질려 비명도 안나오는 상민을 향해

진아, 시니컬한 미소와 함께 라이터 불꽃을 켜다 켜다하면-)

상 민:(극도로 처절한)저 여자, 저 여자 잡아-! 아니, 빨리 빼! 날 좀 빨리 빼줘,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다!

라이터의 불꽃을 최대한 키우는 진아.

그리고 상민에게 보내는 그녀의 마지막 잔인한 미소와 함께-

라이터를 휘발유 속으로 던진다!

불이 붙어 달려오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상황을 눈치 챈 구급 요원들, 상민을 버려둔 채 몸을 날리고!

혼자 남겨진 상민..

공포를 뛰어 넘은, 어쩌면 체념 비슷한 그의 표정.

그의 마지막 시선은 진아를 향해 있고.

여전히, 아니 더욱 잔인해진 진아의 미소..

그의 허망한 눈빛..

결국 차에 닿는 불-

그리고는-

굉음과 함께 주위를 흔드는 폭발!-)

67. 병원, 상민의 입원실. 낮.

(동시에 '앗 뜨거-뜨거-'를 외치며 순간적으로 몸을 벌떡 일으키는 비몽사몽 상민!
기절인지 잠인지, 하여간 악몽과의 힘겨운 전투를 벌이며 침대를 뒹굴고 있는 그.
그런 상민을 의사와 간호사들,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의 사:(의아)..왜 자꾸 뜨겁다 그러지..?

68. 병원, 진아의 입원실. 낮.

(조사 수첩을 달는-)

경 찰:(경멸 투의)..아직 고소 고발 상태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합의보시는 게 좋구요, 위반 사항이 많아 어차피 서로 한번 나오셔야 합니다, 아셨죠?..(그리곤 나가면서 동료 경찰에게)..너 임마, 니 마누라한테 잘 하구 살어, 임마...

진 속:(그 소리를 듣고 짜리는) 이씨...

(경찰, 나가면-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은 진아와 주위의 향미, 진속.

다리를 다친 진아, 상황이 거칠었음에 비해 상태는 양호한 편.)

진 아:(향미에게, 힘없는) 미안해...

향 미:(버럭) 니가 왜 미안해? 그 인간이 죽일 놈이지! 왜수다, 아주 왜수...

진 속:(분한)..그때 아주 개박을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진아, 지친 듯 작은 한숨을 쉬고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면...

그런 진아가 불쌍해 보이는 향미...

눈가에 물기가 젖는다...)

69. 동, 로비. 낮

(팔과 다리에 붕대를 감은 상민, 얼이 빠져 멍한 표정이다...

휠체어에 태워 밀어주고 있는-)

태 화:(행복한 표정의)..너한테 되고나서 얘기하려고 일부러 말 안했던 거야. 사실 지금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어제 뉴스보고 광고주가 좋아했다는 거야. 거의 내 쪽으로 기울어지나 보더라구...

상 민:... ..

태 화:..어제 보니까 나두 카메라 발이 나쁘진 않던데..우리 지희야 워낙 다른 소들에 비해 월등한 아름다움이지만...

상 민:... ..

태 화: 본의 아니게 방송도 타고 그랬는데 개런티는 더 안주나?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그것보다 우유나 평생 공짜로 주면 좋겠다, 허허...

상 민:... ..

태 화:..이게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쁜 소 찾다가 나까지 같이 섭외가 된거야. 다 우리 지희 덕이지..지희가 워낙 눈에 띄잖냐...

(태화의 말은 아랑곳 않고 굳은 표정으로 뭔가를 고민하던 상민, 이내 결심한 듯-)

상 민:(이를 가는)..너, 아는 변호사 있냐..?

태 화:... ..?

70. 동, 복도 로비. 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의자에 앉아 글을 까 진아에게 주는-)

향 미:(농담하는) 그냥 밀어 붙이지 그랬어.

진 아:(힘없이 농을 받는) 다음엔 그럴려구.

향 미: 다음엔 니가 힘쓰지 마. 진숙이 칼 갈아, 지금.

진 아:(작게 웃는. 그리고는 힘없는)..니가 나 때문에 힘들다..손해도 심하고..아무리 친구지만 얼굴을 못 들겠어.

향 미:(농담 섞인 핀잔) 안 그래도 계산 다 하고 있어!..세상에 쉬운 이별은 없다고들 하더라만..참, 징하다 진짜...

진 아:(자조)..사업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다시 하고 싶고 그랬는데..멋지게 품나게..내가 불쌍해서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힘이 많이 빠진 진아를 향미, 안쓰럽게 바라본다...

진아, 잠시 생각에 빠져있다가는...)

진 아:..나, 진짜로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향 미: 너니까 참은 거야, 나 같으면 죽였어, 진짜.

진 아: 살면서도 힘들고 헤어져서도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향 미:... ..

진 아: 그렇게 사랑한 건 뭐구, 이렇게 미워하는 건 뭐니? 뭐가 진짜지? 모르겠어, 정말..

무서워..내가 너무 무서워, 정말...

(눈물이 나오려는 걸 독하게 참아내는 진아...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향미...
음악, 준다...)

71. 경찰서. 낮

(절뚝이며 건물에서 나오는 상민과 진아.
상민의 꼴은 진짜 말이 아니다.
진아를 뒤따라 나오며 바락바락 소리치는-)

상 민:(잔뜩 흥분한)너 꼭 갖고 있어! 죽어도 뺏기지 마, 시계추, 알았어? 너 나한테 그거
뺏기면 사람도 아니야, 알어? 야,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끝에 가서 누가 웃는지, 누가 누구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는지..

(아무 말 없이 상민의 악다구니를 듣고 있던 진아, 말을 끊으며-)

진 아:(차분해서 무서운)..시계추, 줄게!

상 민:... ..?

진 아:..찾아서 보내 줄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상민, 진아의 분위기에 놀리기 싫은 듯-)

상 민:(애써 비아냥)하이고, 진짜로 못 죽여서 얼마나 원통하실까..?

(진아, 찌릿! 무섭게 노려보련-)

상 민:(허걱)..뭐야, 그 눈빛..!

(그러나 진아, 웬일인지 포기한 듯 시선을 거두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고.
평소와는 다른 진아의 반응에 의아한 상민.)

72. 00호텔, 레스토랑 낮

(식사를 하며 변호사에게 열변을 토하는 상민.)

나이가 지긋한 대식가 스타일의 변호사,
충분한 상민과는 관계없이 먹는데 열중하면서-)

변호사:..뭐 또 할 얘기 없어?

상 민:(분이 가라앉지 않은)..카페에서 탁자로 골반 맞은 애긴 했습니까?

변호사: 응.

상 민:(또 뭔가를 말하려다가는, 못마땅한)..근데 변호사님은 메모 같은 건 안하십니까?

변호사: 부부 문제만 30년이야. 이걸 무조건 이겨. 원하는 건만 말해.

상 민:..원하는 거요?

변호사: 당신 전사람 어떻게 해줘? 인신구금, 금치산, 파산 다 돼..원하는 게 뭐야?

(막상 과격하 얘기를 듣자-)

상 민:..그건 아직 고민 중인...

변호사: 심겁긴..근데 이상한 게 말이야...

상 민:... ..?

변호사: 그렇게 싫은데 사고 났다니까 왜 당신을 찾고 다녔을까?

상 민:..그건 개가 원래... ..

(막상 그 질문에 대답을 찾기 힘든 상민...)

변호사:..생각해 봐, 그날 만약 진짜 사고가 났다면, 당신한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였을까..?

(상민, 예상치 못한 변호사의 말에 순간 뭔가에 맞은 듯한 느낌이다..!

부부 문제 30년 전통의 변호사는 여전히 먹는데 열중이고...)

73. 진아의 작업장. 밤

(열심히 작업 중인 진아.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가 진지해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가고 뒷정리를 하던 인철.

머뭇거리다간 진아에게 다가와-)

인 철: 저, 선생님!

진 아: 왜?

인 철:(조금 머뭇거리며, 미소) 저, 제가 오버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항미 선배님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대호 빌딩 접촉 하셨다면서요?

진 아:... ..?

인 철: 거기 인테리어 텅키로 받은 서린이란 곳이요, 저희 이모부님 회사예요. 건물 몇 층은 하청을 줄 모양이던데, 제가 저희 공방 얘기했더니 포트 보내보라고...오번.가요?

(순간 환해지는 진아의 표정!
그에 쑥스런 미소를 짓는 인철.
진아, 그런 인철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74. 00대학 축산과, 실험실. 낮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실험을 하고 있는 태화.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며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뛰어 들어 와-)

학 생:(소리치는) 교수님! 저희가요, 저희가 임신 했어요-!

(순간 멍뚱하는 태화, 놀란 얼굴로 몸이 굳어지고!
그런 태화의 반응에 조금 빨증 당황하는-)

학 생:..지희..새끼 가졌다구요, 교수님...!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한 태화.
아무 미동도 없다가는...
들고 있던 비이커를 놓친다..)

75. XX 쇼핑몰 내, 극장, 안. 낮

(전 씨의 그 극장.
영화가 상영 중이고 역시 한산하다.
혼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는 멍한 표정의 상민.
가끔 괜히 출입문을 한번 힐끗 거리기도 하는 그.
다시 시선은 스크린에 있지만 여전히 공허한 얼굴의 상민.)

76. 소 곶창 집. 밤

(곶창을 구우며 소주를 마시고 있는 상민과 태화.
혼자 떠들고 있는 상민.
그러나 왠지 예전 같은 에너지가 느껴지진 않는다.)

상 민:..그니까 내가 보기엔 개가 초능력이 있는 거야..진아 개량은 딱 10초만 같이 있으면
내가 막 열이 나고 힘이 나고 심장이 벌렁벌렁...

(태화, 별 반응이 없자
두 사람, 말없이 무료하게 마시다가는-)

상 민:..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태 화:(우울한)... ...
상 민:..시계 추 받기로 했다...
태 화:..지희, 애 가졌다...

(곱창을 먹다가 뺨을 뺨 하는-)

상 민:(농담) 니 애냐?
태 화:(진지한)..아니..몰라, 누군지...
상 민:(허걱!)... ...:
태 화:..지희랑 찍기로 한 우유광고 있잖아...
상 민: 연락 없다며..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태 화:..와도 안 찍을 거야..꿈이 없어, 이제...
상 민:... ...?
태 화:(침울한)..지금 내 기분이 어떨지 아냐..? 학교 다닐 때 떠들다가 걸리잖아, 그럼 꼭
우리 선생, 마대자루 가지고 나오래요..그걸로 맞는데..근데 그 마대자루, 그거 내가
관리하는 마대거든, 청소 시간에..그걸로 맞는 기분..배신감...
상 민:(이 인간, 정상일까..?)...::

(태화, 끝없는 심연으로 빠지다가는...)

태 화:(비장한 결심)..내 소 아니야, 이제..!

(그리곤 모든 걸 털어내듯 쓴 소주잔을 원샷하는 태화!
그를 보는 상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하는 표정이다..!)

77. 와인 바, 앞. 밤

(와인을 마신 후 파하는 분위기가 인 듯,
향미와 진아, 서린 인테리어 남직원과 인철이 즐겁게 인사들을 하고 있다.)

향 미:(약간 취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내가 솔로면 결혼이라도 해드릴 텐데..
남직원:(웃으며) 그건 다행이구요, 저는 대표님 지시대로 한건데요, 월..현관 유리 도어 샘플

은 날짜 안에 가능하겠죠?

진 아: 해야죠, 걱정 마세요!

남직원: 네, 그럼 하여간 오늘 즐거웠구요, 저는 이만...

향 미: 아니에요, 저 대리 불렀거든요? 댁까지 들렀다가...

남직원: 아, 아니에요, 여기 택시 많은데..

향 미:(잡아끌며)아, 일루 와요, 누가 잡아먹어? 잡아먹으면 좀 어때..진아야,나 먼저 갈게!

(두 사람의 뒷모습을 재밌다는 듯 바라보는 진아와 인철.

그리곤 두 사람, 잠시 마주 보지만 그저 웃음이 오갈 뿐이고...

그 웃음에 왠지 긴장이 느껴지는-)

진 아:(용기 내어)..술, 조금 더할까?

78. 단란주점. 밤

(태화, 가슴 큰 여자와 함께 '목장 길 따라 밤 길 거닐던...'을 미친 듯이 열창중이고 상민과 다른 한 여자, 빨줄히 박수치며 서 있다가 어정쩡히 '스트랄라 스트랄라 뽀빠' 대목을 따라할 수밖에.)

79. 00호텔, 룸. 밤

(역시 빨줄히 방안에 서 있는 전 썬의 여자와 상민...

여자, 어색해 그냥 웃웃을 베프면,

괜히 헛기침을 하며 화장실로 들어가는 상민,

여전히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고.)

80. Pub 바, 화장실. 밤

(손가방에서 콘돔을 확인하는 진아.

거울을 보면서 숨을 가다듬으며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보고.

하지만 어딘지 어색하고 불안해 보이는 그녀.)

81. 동, 출, 밤

(한산한 실내, 칸막이 룸 형식의 자리.
의자에 앉는 진아에게-)

인 철:(약간의 취기, 미소)전화로 물어보고 온 거 아니죠?

진 아:(흠기며)애는..

인 철: 뭐예요, 그럼?

진 아:..문제가 뭐였더라..?

인 철: 에이, 관둬요..하나도 못 맞추면서...다른 거해요. 이번엔 선생님 아는 거해요.

(그 말에 이미 준비를 해 둔 듯, 용기를 내보는-)

진 아: 그럴까 그럼?..어, 그럼 우리..게임할까?

인 철:... ..?

진 아: 키스 게임의 일종인데 네프킨으로 하는..

(진아, 표는 안내려 하지만 꽤나 긴장해서 하는 말을
너무 편하게 대꾸하는-)

인 철: 어? 선생님 그 게임 어떻게 아세요?

진 아:(영겁결) 향미가..아니..나두 좀 놀아, 아..!

인 철: 좋아요, 해요. 반 이상 찢어가야 하는 거 아시죠? 선생님 먼저 하세요!

(인철, 네프킨 한 장을 입에 물면

진아, 천천히 인철이 물고 있는 네프킨의 한쪽을 입으로 물어
반을 찢어온다.

꽤나 태연히 보이려 노력은 하지만 탁자 밑에 감춰진 손은
이미 긴장의 각이 잡혀 있고!)

인 철: 와, 선생님 잘하시네요! 많이 해보신 솜씨네요!

(어정쩡히 웃는 진아의 입엔 네프킨 반이 붙어있고.
이번엔 인철의 차례-)

인 철: 원래 이 게임은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예요..

(인철, 몸을 일으켜 마치 키스를 하듯 진아의 머리 뒤로 손을 감으며
자연스레 진아에게 입술을 가져가면-

진아, 눈 경직, 심장 경직!

진아의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인철, 진아의 네프킨 반을 찢어 온다!
태연자악을 위장해 보지만 누가 봐도 티가 나는 진아의 얼굴.
그런 진아가 귀여운 듯 인철, 미소를 띠우고..)

진 아:..너도 잘한다, 야!..내 차례지..?

(인철의 입에는 이제 4분의 1 크기에 네프킨이 붙어있고.
입술이 거의 달을 사이즈.
용기를 내보는 진아.
기왕 하는 거 어린 인철보다 좀 더 진한 느낌의 포즈를 취하려
몸을 일으켜 인철의 입으로 입술을 가져가 보는데-
역시 어정쩡..
그래도 진아에겐 꽤나 임팩트 있는 상황이라 눈을 감고 조심스레
네프킨을 찢으려하면, 스치는 두 사람의 입술.
인철, 장난스레 입술을 내밀어 진아에게 입을 맞추면-
순간 당황한 진아, 급히 네프킨을 찢으며 자리에 앉는데-
이때 들리는-)

남 자:(소리) 윤 진아 작가시죠?

(화들짝 놀라는 진아, 보면-
예전, 진아에게 한방 먹었던 XX 물산의 느끼남, 유차장이다..!
가슴이 내려앉는 진아, 곤혹..!
게다가 진아의 입에는 찢겨진 네프킨 조각이 너덜히 붙어 있고!
황급히 떼어내는 진아.
약간 취기가 있는-)

유차장:(상황을 보곤 비아냥) 제가 그때 제대로 실수했네, 이런 타입이신 줄도 모르고...

인 철:..웬니까, 당신?

진 아:(말리는) 인철아!

유차장: 구-ㄷ! 원래 진아씨 같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 좋아해요, 알지, 내가.

진 아:(발끈하는) 아셨으면 가던 길 가지쇼!

유차장: 아, 작업 방해, 죄송! 드릴게 있어서..(일부러 뒤지는 척) 뭘 하나 주었는데..아,
여기 있네..콘돔 홀리셨네요, 윤 진아 작가님!

진 아:... ...!

(탁자에 콘돔을 던지고는 비소를 날리고 가버리는 유차장.
진아, 너무나, 너무나 창피하다...)

82. 동, 앞, 밤

(뒤뚱 나오는 진아를 뒤따라 나와 잡는-)

인 철: 선생님!

(진아, 너무 부끄러워 쳐다보지도 못하고...)

인 철: 저기요..전 괜찮아요, 선생님만 괜찮으시면.

진 아:... ...?

인 철: 저도 알건 알아요..오늘, 같이 있어 드릴게요, 물론 내일되면 없었던 일로 하구요.
그래 드릴게요. 선생님 힘드시면...

(동정이 느껴지는 인철의 말...

오히려 그 말이 진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어쩔 줄 몰라 구기듯 어색하게 웃고 마는 진아...)

83. 다시 00호텔, 욕실, 밤

(뚜껑 덮힌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상민..

그렇게 있던 지 오래된 느낌이다.

잠시 후 들리는 방문소리.

여자가 나갔다.

폭하고 한숨을 내쉬는 상민...

그리곤 문득 옆 세면대에 뭐가 묻었는지

습관처럼 무료하게 손을 뻗어 닦고...

조용히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84. 진아의 전원주택, 거실, 밤

(부분 조명만이 켜져 있는 실내.

한쪽에 놓인 투명한 유리관 뚜껑 위에 올라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진아.

슬립 차림에 전 썬의 핑크 가발을 뒤집어쓰고는

표정도 알기 힘든 진한 화장을 하고 있다.

주위에 많은 술병과 캔들.

그 위로 들려오는 엔서링 머신에서의...)

향 미:(소리)..애, 진숙이 개 지 전남편이랑 다시 합친댄다, 애..참 인생 무념무상으로 살어,
개..그럴 거면서 무슨 골수를 뽑네, 관절을 분리하네..나, 원 참...

(진아, 문득 저쪽에 놓여 있는 몸거울을 멍하니 바라보면-
그곳에도 진아가 있고.
이 모습들이 조금은 비현실적인 느낌까지 들게 한다...)

85. 다시 00호텔, 욕실. 밤

(세면대를 닦던 상민, 이제는 욕조를 닦기 시작하고...)

86. 다시 진아의 전원주택, 거실. 밤

(왠지 눈물이 나는 진아...
거울 속의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오른 손을 들어 보이는 진아...
거울 속의 그녀가 들어 보이는 왼손...
그 모습이 서러운지 진아, 더욱 눈물이 흐르고...
음악, 고조되면서...)

87. 다시 00호텔, 욕실. 밤

(이제는 아예 옷통을 벗고 있는 힘껏 욕조를 닦는 상민...)

88. 다시 진아의 전원주택, 거실. 밤

(이제는 관 뚜껑 위에서 흐느끼는 진아...
너무 안쓰러운 그녀의 모습...)

89. 다시 00호텔 욕실 그리고 우주...밤

(격하게 욕조를 닦아내는 상민...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그의 얼굴...
마치 자신을 지우듯 그렇게. 절실한 상민의 모습도
진아의 모습만큼이나 안쓰러운데...
이때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욕실의 천정이 밤하늘 우주로 변하면서-
상민의 욕조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나 상민은 아랑 곳 않고 욕조를 닦는다..
광활한 우주를 유영하는 욕조 안의 상민..
절대 고독..
진아도 지구의 반대편에서 유리관을 타고 유영하며 나타나고.
그녀 역시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가끔 둘 사이에 위성도 지나고 생뿔맞은 타조도 한 마리 날아(?)가지만
우주의 끝과 끝에서 각자의 고통에 힘겨워하는 두 사람이 애잔하고..
음악, 슬픈 판타지 분위기를 좀 더 고조 시키다가는...
서서히 준다...
F.O...)

90. 진아의 작업장. 낮

(검은 화면 위로 들리는-)

향 미:(소리) 다들 모였지? 자, 시작한다! 놀랄 준비들 하고! 하나, 둘, 셋!

(셋과 동시에 조명이 켜지며-
어두운 공간에서 그 빛을 받은 실물 크기의 유리 도어 샘플들이 화려하게 나타나고!
그 모습을 보고는 감탄하며 좋아하는 공방 식구들!
내일 있을 샘플 시연회를 준비 중이다.
불이 켜지고 자축하는 진아와-)

향 미:(들뜬) 내일 요 반응만 나오면 돼! 그럼 게임 끝이야! 무조건 우리 작품 들어가는 거
고, 이제 돈 좀 벌어보자!..야, 와인 가져와!

(처음 나온 유리 작품에 와인을 따라 마시는 게 유리 장이의 관습인 듯,
진아에게 사발을 골라 건네며-)

향 미: 그 와중에 고생했고..(문득 목소리가 떨리는지)..에이, 뭘 말이 필요 있겠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원 샷!

(진아, 웃으며 원 샷을 하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사람들도 와인을 따라 마시기 시작.
화덕에 구운 피자들도 나눠 먹고,
따뜻한 친구 향미, 진아의 등을 두드려 주면
고마운 미소를 건네는-)

진 아:(힘내어 조수들에게, 농담하듯) 착색이랑 커팅 확인하고, 작품들 다 한쪽으로 몰아
놔 줘! 취해서 다 깨라, 또!
조 수1:(웃으며)선생님도 많이 드시면 안돼요, 밤에 여기 화덕 밸브 체크링 맞으시면 안돼요!
진 아: 오케이-!

(이때 작품 하나를 가지고 킁킁대던-)

조 수1: 아, 여기 벌레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네..!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진 아:... ..?

91. 곤충학 교수회 사무실. 낮

(곤충학회 교수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전 썬과 거의 판박이 분위기.
안건 역시 '홍다리 사슴벌레 서식지 보존 대책'.
이들의 성향인지 역시 회의도 두런두런 소박한 반상회 분위기.
상민도 그때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한쪽 구석에 박혀
골똘히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

회원 1:(차분한)..정부에서 토론회를 또 한 차례 미루는데 우리가 그냥 이러구 있어도 괜찮
을까요?

회원 2: 뭐 1인 시위도 진행 중이고, 항의 서한도 발송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려 보죠?

회원 1: 그렇지, 이 선생? 정부에서 지금 호의적인데 괜히 건드릴 필요가 없겠지?

회원 3: 설마 자기들이 그냥 서식지에 가서 공사한다고 말뚝 박겠어요? 상식이 있지..
허허...

협회장: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상민을 부르는) 어이, 김 선생!

상 민:... ..

협회장: 자요? 김 선생!

(순간 표정이 날카롭게 변하며 무겁게 입을 여는-)

상 민:..지금 장난들 하십니까..?

(전 썬의 분위기와는 180도 달라진 상민에 일동, 긴장!

상민, 갑자기 테이블을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

상 민:(버럭) 정부에서 약속 어긴 게 도대체 몇 번 째니까? 근데 그냥 또 지금처럼 항의 서한이나 보내면서 1인 시위나 하자구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구 새가슴이란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원 4:(찢리는지)..새가슴...

상 민:(흥분이 오르는) 우리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흉다리 사슴벌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이 안 먹히면 가서 드러눕기라도, 분신이라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게 우리 학자들 책임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몇몇 회원들.)

상 민:(흥분이 오르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반드시 후회한다는 걸 보여주어야...

(이때 문득 말이 걸리는 상민...

자신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음악,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고...)

상 민:..아니, 적어도 후회 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상민의 얼굴에 왠지 모를 슬픈 빛이 스치고...)

상 민:(목소리가 낮아지는)..지켜 주기로 했으면, 적어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안 되는 건 어쩌겠습니까..하지만 그래보지도 않고 모든 게 끝나버리면..(상민의 목소리가 떨리고)..그때 그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어쩌다가 자신의 말이 된 건지...

자기도 모르게 눈가에 맺히는 눈물...

그 모습을 본 회원들, 상민의 속도 모르고 감동을 받아

하나 둘 박수를 치기시작하고...

박수 소리는 커지지만 상민의 표정은 밝아지질 않는다...

음악 줄고...)

92. 진아의 작업장. 밤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진아...
그 앞에 놓인, 전 썬의 벌레가 들어 가 있는 유리 병.
지난 생각에 잠긴 듯 진아, 병을 바라보면서 와인 잔을 기울인다...
조금은 취기가 느껴지는 그녀...
진아, 핸드폰을 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까 잠시 망설이고...
상민일까..?
이내 포기하는 그녀.
다시 옆에다 핸드폰을 놓고 와인을 마시면.
이때 울리는 핸드폰.
진아, 전화를 잡으려다가는 병을 치고.
깨지는 유리병...
그제서야 벌레, 자유가 되고...
낭패스러운 진아, 전화를 받으면-)

상 민:(버럭) 나야!
진 아:(조금은 당혹, 그러나 이내 한숨)..왜 아니겠니...

93. 야외 포차. 밤

(혼자 술을 먹고 있던-)
상 민:(완전히 꼴아 고래고래) 왜 시계추 안줘, 왜! 왜 안줘-!
(카운터에 있던 주인, 놀라서 알바에게-)
주 인:(버럭)워야 저기, 빨리 갖다 줘, 임마-!

94. 다시 진아의 작업장. 밤

(대화 자체가 피곤한 듯-)
진 아:..우리도 좀 대화처럼 통화하면 안 될까..?
상 민:(소리, 버럭) 대화? 니가 언제 나랑 대화한적 있어? 싫어! 시계추 주면 끝이야! 빨리
줘. 시계추-! 왜 준다 그랬다가 안 주구...

(마치 애들 조르듯 악악대는 상민이 기가 막힌 진아...
이때 화덕에서 새기 시작하는 가스!)

95. 다시 야외 포차. 밤

상 민: 내가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너 땀에..날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엉? 왜-?

96. 다시 진아의 작업장. 밤

(화덕에서 새는 가스, 압력이 높아간다!
그러나 눈치를 채지 못하는 진아,
여전히 악악대는 상민에게 만성이 되어-)

진 아:..기운도 좋다, 정말..곧 줘..곧 주니까 이제...

(순간 '평-'하며 압력밸브가 터지면서 일어나는 폭발!
크진 않지만 의자에 앉아있던 진아, 튕겨져 나가며 쓰러지고!
그리곤 이내 일기 시작하는 화염!)

진 아:(너무 놀라)..불..불..!

97 다시 야외 포차. 밤

(진아의 비명에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리는-)

상 민: 흥, 불나서 없어졌다 그럴려구? 그러니까 니가 머리가 나쁜거야..

진 아:(소리) 어, 불..불이야..불..어, 어떡해..어떡해..!

상 민:(깔깔대며 비웃는)..아예 쇼를 해라, 쇼를...

98. 다시 진아의 작업장. 밤

(금이 가며 터지듯 쏟아져 내리는 유리 도어 샘플들!)

진 아:(다급한) 엄마. 어떡해! 샘플! 샘플!!

(놀라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불을 끄기 시작하면서-)

진 아:..아악..엄마 어떻게..불이야-..나 좀 도와 줘..어, 어..작품들, 작품들..나 어떡해..!

(다시 깨져 쏟아지는 샘플과 작품들!)

99. 다시 야외 포차. 밤

(여전히 진아가 꾸미는 일인 줄 아는-)

상 민:(놀리며) 불로 녹여! 불로 녹이는 거 아니야, 원래? 헤헤헤..몽땅 녹아버려, 작품들...

(전화가 끊기고.

상민, 의아하지만 코웃음을 치고는 재발신을 누르면,
받지 않는 진아.)

상 민:... ..?

100. 다시 진아의 작업장. 밤

(불을 끄면서 어떻게든 작품들을 밖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진아!

그러다가는 자기가 넘어뜨려 깨뜨려 버리고!

불이 크진 않지만 위험해 보이는 상황!

외딴 곳이라 도움도 쉽지 않은 이 곳!

그래도 진아, 자신의 몸보다는 작품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력을 다한다..!)

101. 다시 야외 포차. 밤

(웬지 찻잔의 상민, 그러나 애써 무시하며 알바에게-)

상 민: 어이, 안주는 왜 안주나? (하곤 그 말이 웃긴 듯 혼자서)'안주'는 왜 '안주'나?
헤헤..웃긴다...

(상민, 웃어는 보는데 여전히 왠지 찝찝한 느낌...
그 느낌 없애본답시고 노래로 흥얼거려보는-)

상 민:..불이 라네 불이야~..불 소를 해라 불 소를~..그런다고 내가 속을 줄 아냐~...

(애써 태연한 척해보지만...)

102. 택시 안, 밤

(진아의 전원주택으로 가는 야외 도로.
비가 부슬부슬 을씨년스럽게 내리고 있다.
아까보다는 좀 더 불안한 표정의 상민,
그러나 애써 표를 안내려 여전히 위 씩처럼 혼자서 흥얼대며-)

상 민:..걱정 되서 가는 거 아니다~..시계추 찾으러 가는 거다~..시계추 내놔라~...

(택시기사, 무서운 듯 상민을 힐끔힐끔..!)

103. 진아의 작업장, 앞, 밤

(도착하는 택시.
상민, 내리고 보면,
외향은 그닥 이상이 없는 듯 하지만 느낌이 이상하다...
상민, 작업장으로 가 문을 열어보면-
불 꺼진 내부에 온통 불 그을음과 채 마르지 않은 부서진 집기들과 시설들,
그리고 조각난 작품들까지...
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오히려 괴기스럽기까지 한 분위기..!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라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둘러보는 상민..!
이때 인터컷으로 들어오는-
내려지는 셔터 문!
채워지는 자물쇠!
잠기는 입구!
놀라는 상민, 보면-
번개가 친 듯한 비 오는 창밖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형클어진 옷, 얼굴에 온통 숫 칠이 되어 물골이 말이 아닌,
그래서 더할 나위없는 공포물 히로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진아..!

상민, 허걱..!

와인을 병째 들이키며 그를 보면서 잔인한 미소를 띠우는 그녀..!

게다가 다른 손엔 유리잔을 만들 때 부는..쇠파이프까지..!!)

진 아:..왜 왔어..?

상 민:(겁은 나지만 표를 안내려)..괘, 괜찮아..?

진 아:(차가운 미소)..괜찮아 보여..? (시니컬)..보다사피..게임 오버..!

상 민:..사람들이라도..부르지..그랬어...

진 아:..이 꼴을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상 민:..병원..가자...

진 아:(비소)..갑자기 왜 잘해주는 척..?

(진아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자 상민,

겁은 나지만 역공을 취하며-)

상 민:(버럭)야,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이랬어-?

진 아:(더 큰 버럭)그게 할 얘기야-? 니가 안 그래서 억울해-?

상 민:(깨갱)..지, 진아야..진정하고..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 아:(와인을 마시며, 비장한)..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도 게임 끝내자..!

상 민:(겁이나 웃음으로 무마하며)..야, 농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진 아:농담?..그래 넌 아까도 웃으면서 그랬어..하긴 농담인지 진담인지 상관없었겠지,
뭐..!

상 민:... ..!!

진 아:(자조적인)..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상 민:... ..

진 아:(씁쓸한 미소)..아니지..이제 우리가 아니지..난 항상 이래..난 아직도 우리래, 넌 항상
너였는데...

상 민:(할 얘기가 있지만 참는)... ..

진 아:(슬픈)..우리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실패가 아니고 실수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이혼한 거 후회하기 싫어서, 진짜 싫어서..너보다 훨씬 더
잘 되서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는데 또 실패한 거 같애..왜 이렇게 힘들지? 오빤
어때?..좋아..?

상 민:..진아야, 그 얘기, 지금 어울리는 얘기 아닌 거 같은데...

(감정이 불안한 진아, 눈물을 닦고는 말을 끊으며 차갑게-)

진 아:..사과해.

상 민:..뭘?

진 아: 원하는 대로 작품들 다 깨지고 녹아 버렸거든..사과할 만하잖아..?

상 민:(정곡을 찢려 겁이나 자신도 모르게, 버럭)왜 나한테 그래? 불은 니가 냈잖아! 불은
니가 냈으면서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그 말에 진아, 가슴이 아픈 듯 천천히 고개를 떨구곤
말없이 있다가는 힘없이...)

진 아:(목소리가 떨리는)..미안하다고 해줘...

상 민:(의외의 반응에 당황)... ...?

진 아:(울음이 섞이는)..미안하다고 해줘..내가 그런 게 아닐 수 있게...

(상민, 진아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예전 언젠가 처럼 결국 선을 못 넘어서는...)

상 민:(헛기침) ㅎㅎ..유감..이다..정말.

(그 말에 진아, 눈에 불꽃이 튀며-)

진 아:(버럭) 너 여기 왜 왔어-!

(기겁 하는 상민, 하지만 본능적인 버티는 습성으로 냅다 소리를 친다는 것이-)

상 민:(버럭)시계추 쫓겨-!

진 아:(결국 터지고 마는)뭐 이 새끼야-!!!!

(긴박한 음악, 터져 나오고-!)

104. 동, 밖, 방

(와장창-!

유리창을 뚫고 나오며 도망쳐 나오는 상민의 슬기!

그 뒤를 따라 뛰어 나오는 쇠파이프를 든 진아의 독기!

비도 만만치 않게 오고 있다!

죽을힘을 다해 뛰어 도망가는 상민,

그러나 다리가 불편한 그, 위기스럽고!

다행히 진아도 다리가 편치는 않는 듯 뛰는 품이 안정적이진 못한다.

그 모습 멀리서 보면, 코믹하고!

그러나 당사자들, 오직 살겠다는 의지의 상민과 사생결단의 의지인 진아!)

진 아:(독기를 내뿜는)거기 서-!

상 민:(슬기를 부리는)너 서면 서-!

(비가 와 주위엔 아무도 없고.
넘어지는 상민,
진아 그런 그에게 쇠파이프를 날리려다
자기 힘에 눈으로 미끄러지고!
상민, 다시 기회를 얻어 도망가기 시작!
등등...
비 오는 드넓은 논밭과 전원을 두 사람, 마음껏 살벌이 누비고 있다!)

105. 동, 타조 농장. 밤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두 사람,
보면-
마당 한가득 진흙탕 범벅인 대형 타조 농장..!
바닥으로 떨어져 뒹구는 두 사람, 상태가 말이 아니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
상민, 잽싸게 일어나 울타리를 뛰어 넘으려 손으로 짚으면-
'으아악-' 비명과 함께 나가떨어지는 그!
철사로 둘러 쳐진 울타리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진아, 벌떡 일어나 쇠파이프를 들고 전의를 다지면-
힘겹게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며-)

상 민:(다급히)말로 해, 말로!
진 아: 말은 서로 할 만큼 했어-!

(진아, 풀 스윙하면,
가까스로 상민은 피하고 빗자루만 맞고 떨어져 나가고!
이에 화가 나는-)

상 민:(버럭)죽일 작정이야?
진 아:(버럭)그래-!

(진아, 쇠파이프를 다시 휘두르면 미끄러워 빠져버리고!
간신히 피하며 넘어지는 상민!
진아, 그대로 상민을 덮치며 펀치를 내리 쏘으면,
상민도 엄청 맞다가 제대로 한번 날린 펀치에 진아, 휘청하고!
그러나 진아, 다시 한번 펀치!
상민도 펀치!
그리곤 쓰러진 진아를 향해 몸을 날리면-)

옆치락 뒤치락 치열한 땅 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팔을 물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그들의 자세가 체위 비슷하게도 보이고.
이를 보는 사육장 안의 타조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고개들이 왔다갔다.
역시 힘으론 안 되겠는 진아, 몸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펀치를 날리는듯하다가
상민의 낭심을 제대로 차버리는 필살기!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지는 상민의 정수리를 진아, 다시 한번 팔꿈치로 가격!
상민, 고통에 겨워 아예 굴러버린다!
그 틈에 재빨리 쇠파이프를 잡아 드는 진아!)

상 민:(이제는 독해지는)그래, 죽어..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넌 그만큼 충분히 독하고도
남아, 죽어!

진 아: 니가 이렇게 만들었어, 너밖에 모르고, 너만 좋으면 되고, 너 때문에 모든 게 희생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너라는 인간 참아 내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알아-?

(소리를 지르며 진아, 상민을 향해 쇠파이프를 치켜들면-
본능적으로 피하며 진아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상민.
그리고는 가까스로 일어나 옆에 있던 쇠갈고리를 쥐어 들면-
진아도 재빨리 몸을 일으켜 전열을 가다듬고!)

상 민:(화가 치미는)그래, 결국엔 이렇게 끝나는 구나, 우리..나밖에 몰라? 왜 나밖에
모르게 됐는데! 니가 내 얘기 한번 제대로 들어 줘 봤어? 백하면 화내고, 백하면
사과해라..할 얘긴 많고 들어주진 않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진 아:(울컥하며 소리치는)단 한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얘기해 본 적 있어-?

상 민:(소리치는)그러니까 넌 단 한 번도 내 얘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는 거야-!

(긴박한 리듬, 고조되면서-

해결되지 않는 극과 극.

진아, 다시 확인 된 그 사실에 분통이 터지는 듯

비명 소리와 함께 위협적으로 쇠 파이프를 휘두르면-

역시 독 오른 상민, 피하며 자기도 휘두르고!

그렇게 몇 번의 살기등등한 바람을 가르느 합이 오간 후,

상민, 불편한 다리 때문에 자세가 휘청이자-

기회를 본 진아, 혼신의 힘을 다해

아아-! 하며 비명을 지르면서 상민에게 쇠파이프를 있는 힘껏 내리치면-

절대 절명, 쇠갈고리로 막아내는 상민!

짱-!하는 소리와 함께-

긴박한 리듬, 끊기면서-

두 사람, 쇠 진동 때문에 생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손을 움켜쥐고 주저앉는다!

한동안 신음을 흘리는 두 사람...)

진 아:(신경질, 버럭)..그걸 그렇게 막으면 어떻게!

상 민:(신경질, 버럭) 그럼 맞으리?

(그 말에 진아, 인상은 쓰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픽하고 웃음이 나오고...

상민도 자기가 한말이 기가 막혀 쓴 웃음...

그리곤 문득 비가 점점 그쳐가자...)

상 민:..어? 비 그치네..다행이다..내일 채집 실습인데...

진 아:..모래 포대 안 덮었는데, 잘됐다...

(생똥맞은 그들의 대화가 이상하게 자연스럽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한지 계속 손목만 주무르고...

그러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던 두 사람...)

진 아:..그러니까 우리 참 안 맞는 거야, 그지..?

상 민: 징그럽게 안 맞는 거지..!

(다시 손목만 주무르는 두 사람...)

상 민:(피식)..근데 알면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진 아:(피식)..알면 안 싸우지..

(미소만 머금고 다시 말이 없는 두 사람...

가끔 피식피식 웃으며 손목만 주무르고 있는 두 사람...

그러다 아주 가끔 웃음이 커지기도 하는 두 사람...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정겨워 보이는 거는 왜일까..?

그 모습 점점 멀어지면서...

음악 준다...)

106. 진아의 전원주택과 카페. 낮

(감미로운 캐롤이 흐르고...

몽타쥬 느낌으로-

-외출준비를 하는 진아의 모습.

화장을 하고, 웃을 고르고...

이때 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에게 상품 설명을 하는-

소 리:(여정원의)..이게 이 시계의 전통이래요. 그래서 이 시계는 시계추가 중요한 거구요.

(시계추라는 말에 진아, 문득 호기심이 생기고.)

소 리: 제가 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시계에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새긴다..그것도 시계추 뒤에..비밀스런 영원한 진실..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진아, 돌아보면-

가리고 있던 손님이 벗어나자 보이는-

정원의 손에 들려진 상민이 영국에서 산 것과 똑 같은 시계..!

다시 디스플레이 되는 그 시계를 보며 진아,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고..!)

111. 다시 상민의 차, 안. 낮

(화난 얼굴로 전화를 하고 있는 상민.

계속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를 않자-)

상 민:(버럭)전화 좀 받아, 좀-!

112. 다시 인천공항청사 안. 낮

(검색대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진아, 보면-

저쪽에서, 연인인 듯 안에 들어가 있는 남자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여자.

서로 말은 들리지 않지만 열심히 입 모양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둘...

진아, 그런 둘을 보며 작은 미소...)

113. 인천공항청사, 입구. 낮

(다급히 안으로 들어오는 상민의 차.)

114. 공항 검색대. 낮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분주해 보인다.)

곧 차례가 되는 진아,
투시 검색 벨트에 가방을 올리고는
손을 들어 검색을 받으면-
이때 '삐-'하는 소리와 함께
검색대에 걸리는 진아의 가방!)

진 아:(의아)... ...?

115. 공항청사, 안. 낮

(다급히 진아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니는 상민...
이제는 화난 얼굴이 아닌, 진아를 찾고자 하는 절실한 표정이다...
다시 한 번 전화를 해보는-)

상 민:..전화 좀 받아, 제발...

116. 다시 공항 검색대. 낮

(검색대를 통과 못한 진아가 한쪽 구석에 있는 간의 의자에 앉아
가방을 뒤지고 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를 않는지 의아해하다가
혹시나 해서 가방 바닥의 깔창을 들춰보면, 뭔가가 있고-
진아, 그것을 빼내어 보면...
상민이 그렇게 찾던..시계추다..!
문득 무슨 생각에선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던 진아,
천천히 뒤를 돌려 보면...
그곳에 고풍스런 장식체로 아름답게 씌어져 있는...

'My heart fullled in..

기대하지 않았던 글을 읽으며 놀라는 느낌의 진아,
마지막에 씌어진, 상민이 직접 쓴 듯한 삐뚤 글씨...

미 안 해.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진아..!
사랑이 느껴지는 음악이 차분히 흐르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민의 진심에 갑작스런 감동을 느낀 듯
손으로 입을 막곤 애써 울음을 참아보려 하는데...
이때 주머니에서 진동음이 들리며 불빛을 반짝이는 핸드폰..!
진아 보면, 'Shit!'이라고 씩어진..상민이다..!
진아, 망설이다가는 조용히 폴더를 열면,
예의 그릇듯 터져 나오는-)

상 민:(버럭)야, 너 어디 도망가-! 너 가짜 주구 도망가-? 너 내가 가짜 준거 모를 줄
알아?

(진아, 상민의 목소리를 듣자 울음이 터져 나오려 하고...
애써 손으로 입을 막아보는 진아...)

117. 공항청사, 안. 낮

(목소리는 화를 내고 있지만 맘을 흘리며 여전히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뛰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상 민:..너 어디야, 지금! 나 공항인데 너 지금 어디냐구-! 너 가짜 주구 그냥 될라 그래?
니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애?..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엉? 내가 이대로
몰러 날 것 같애? 도망가면 다야? 나 혼자 남겨 놓고 너 혼자 미국가면 다야-?

(급한 마음에 마치 쏟아 붓듯 소리를 질러대던 상민,
그러나 진심이 아닌 자신의 말에 지친 듯 천천히 걸음을 멈추면서
결국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절실히 얘기하는...)

상 민:(떨리는)..가지..마...

118. 다시 공항 검색대. 낮

(음악, 고조되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진아...
그 위로 계속되는...)

상 민:(울음 섞인 소리)..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가지 마..미안해...

119. 다시 공항청사, 안. 낮

(힘겹게 울음을 참아내려 애쓰지만 눈물이 흐르는 상민...)

상 민:..미안해, 정말..지금에서야 이 말하는 것도 미안하구, 지금에서야 널 잡는 것도 미안 하지만..니가 없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너 가면 난..제발 가지마...

120. 다시 공항 검색대. 낮

(상민의 절실함에 진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 힘들다...)

121. 다시 공항청사, 안. 낮

상 민:(눈물을 닦으며 사정하는)..그냥 나랑 여기서 살면 안 될까?..싸우는 것도 재밌잖아.. 싸우면서 재밌게 살자..나 잘할게..약속할게 진짜...

122. 다시 공항 검색대. 낮

(흐느끼던 진아, 결국 상민을 찾으려는 듯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123. 다시 공항청사, 안. 낮

상 민:..나 한번만 믿어 줘..내가 진짜 이제 니 성질머리, 아니 니 성격 아니까..너한테 잘 할께..내 욕심만 채워서 너무 미안하구 이제부터는...

(이때 똑똑하며 유리를 노크하는 소리 들리고,

상민, 돌아보면...

유리 안쪽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미소를 띠우며 상민을 바라보고 있는 진아...

상민, 울컥하면서 너무 반가워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는,